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유린 규탄!’



▲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성원들이 조순덕 전의장 구속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 목 · 차 ·

- 우리의 주창 권오현 · 2 / 성명서 · 8 / 기고 · 조순덕 어머니 임미영 · 10 / 슬픈일이 있었어요 · 송영길 선생님 별세 · 13 / 손영심 선생님 별세 · 14 / 감옥에서 온 편지 · 권승우 외 2명 · 16 / 산행기 · 북한산 족두리봉 산행기 김익 · 22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4 / 이런일이 있었어요 · 26 / 재정보고 · 37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8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o.or.kr 이-메일 : yangsimso@hanmail.net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올 반복 대결정책

- 공동선언이행, 북침전쟁연습 영구중단, PSI 참여반대 주한미군철거를 거듭 촉구한다 -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자연의 계절은 봄을 맞고 있지만 조국 반도의 평화와 통일정세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금강산, 개성 관광길이 막혀 버렸고, 애써 지어놓은 이산가족면회소는 주인을 맞지 못하고 있다. 남북 당국사이의 대화 창구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화해 협력의 좋은 상징 사례가 되었을 개성공단마저 마음 놓을 수 없게 되었다.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와 관련된 모든 합의들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감행된 한미 합동 북침전쟁연습과 '인공위성 발사준비'를 둘러싼 한·미·일의 PSI 참여니 유엔제재니 요격이니 하는 적대행위로 남북사이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군사적 충돌 위기 국면마저 조성되고 있다. 그야말로 '십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공들인 화해의 답이었고, 얼마나 애써서 이룬 협력 정신이었는데 - 그 10년 동안 같고 닮은 남북 사이 화해 협력이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던 말인가. 바로 1년 전만 해도 한 해동안 수십만이 북으로 남으로 가고 오며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그리고 자주통일의 길을 다져오지 않았던가. 사상과 이념 제도과 체제를 뛰어 넘어 민족적 대단결로 어떠한 외세의 간섭 없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하기로 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어찌 지난 정권들만의 뜻일 수 있겠는가. 분단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한결같이 염원해온 온 겨레의 뜻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남·북·해외 온겨레가 열광하고 지지 환영했으며, 온 세계가 기립박수를 보내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위대한 합의와 그 이행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깎아내려지고 모독까지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정당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21일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국회의'를 제안했고, 12월 18일에는 각계인사 650명 연명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3월 16일 국회 본관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가 열렸고, 참가정당 국회의원 전원과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인사 1,000여명 이름으로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대국민선언'을 채택 발표했다.

선언에서는 '경제위기에 남북간 군사적 충돌위기까지 가중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대북정책 전환없이 남북관계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당국에 대해 '6·15·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이행의지를 명백히 밝힐 것'과 '말로만 대화가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평화적 해결방안'과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준비>를 둘러싼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를 급한 현안으로 지적했다.

비상시국회의의 선언에서 밝혔듯이 남북관계를 오늘의 위기상황으로 몰아온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복대결 정책때문이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규정하고 남북사이 화해협력 정책을 '퍼주기'니 '끌러다지기' 따위로 폄하 모독했다. 통일부를 아예 없애려 했고, 사회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기구를 대폭 축소하여 존속시켰으나 통일부장관, 통일교육원장 그리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의 고문들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등을 한사람 같이 반복 극우인사로 내정, 임명했다. 이른바 대북정책이란 것이 '북핵폐기'였고, 국정운영과 대외정책 우선과제도 이북을 고립시키는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군사동맹추진이었다. '비핵개방 3000 구상' '북핵기지 선제타격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론' 등 6·15, 10·4 선언 이행의지는 커녕 반복대결, 흡수통일론에 집착하는 모습이였다.

그뿐 아니라 북을 자극하거나, 군사적 위협 활동도 이어졌다. 최근에만도 반복, 극우 단체들이 이북의 최고 수뇌와 체제 비방을 담는 대북빠라 살포(2008. 11.5 이래 계속 되고 있음)를 방조하고 있으며, 경북 포항 해안에서는 미해병 제31원정기능부대와 독도함을 포함한 함정 27척, 기동·공격 헬기 등 항공기 30여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70여대, 해병대 1사단 및 상륙지원단 병력 1만 여명으로 '작전환경고려 발생가능한 실전상황'을 상정한 대규모 한미연합 상륙훈련을 실시했다(2008. 11.6~8). 또한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협력하기로 한 10.4선언을 어기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2008.11. 09.3.19) 베이징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에서는 '경제보상-검증의정서 연계' '발언 등 2단계조치의 이행 과정에서 과거 정권 시대의 '중재자' 역할에서 '혜방꾼' 역할을 했다는 언론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2008.12).

이같은 이명박 정부의 잇단 반복대결자세에 11월 12일 남북장성급 회담 북측단장은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지적하며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

고 했다. 특히 대북비방 빠라 살포 중단 등을 강조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했고, 반복단체들은 12·1 조치 바로 다음날 또다시 빠라를 살포했고 통일부와 공안당국은 '빠라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사실상 빠라 살포를 방조하고 있었다. 한·미 군사 당국의 대북군사적 압박도 이어졌다. 미태평양 사령부가 한국군과 함께 이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對)확산위킹 그룹(Counter Proliferation Working Group)을 구성, 운영 중에 있음이 미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인 국방대학 부설 대량살상무기 연구센터가 지난 5월 발간하여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WMD 조절을 위한 국제파트너쉽'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12.29). 이 대(對) 확산기구는 대북선제공격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해군은 이북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용중인 탄도미사일 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18척 가운데 16척을 태평양 지역에 집중배치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2009.1.8). 또한 군당국은 'NLL 일대 공중으로 도발해 올 것에 대응해 NLL 인근 도서에 지대공유도무기인 '천마'를 배치할 것을 검토 중'이라 했다.(2.16) '천마'는 20Km이상이 항공기를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직선10km 고도 5Km로 날아오는 각종 전투기를 10초내에 요격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이상희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현장의 합동전력으로 최단시간 내에 작전을 종결토록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위기가 증폭되고 있지만 전쟁준비만 있을 뿐 평화적 위기관리는 전혀 않고 있는 모습이였다.

이북은 1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과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 활동과 앞으로 있을 전쟁연습 등을 문제삼으며 '전면대결태세진입'을 선언했고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①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 사항을 무효화’ 하며 ②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협력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 군사 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의 폐기를 정식 선포한다’고 했다. 성명은 이어 ‘북남 사이의 지난 시기에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 존중문제, 비방중단 문제, 무력 충돌 방지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되었었다. 그러나 현실은 북남 사이의 합의사항이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북만이 과거 합의에 구속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남북 사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대규모 한미 연합 북침전쟁 연습(키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oal Eagle)이 감행되었다. 이 전쟁연습과 관련 이북은 3월 5일 조선평화통일 위원회 성명에서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충돌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으므로 군사연습기간 우리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해상 항공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북침전쟁연습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한 연습이 시작되는 9일에는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가 전체 인민군 장병들에 만반의 전투준비를 갖추 것을 명령했고,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① ‘우리의 령토 령해 령공에 대한 0.001 mm의 침범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②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타격’ 하고, ③ ‘침략전쟁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동·서 북남 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할 것이며 북남군사통신도 차단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에 대해 키리졸브/독수리 대규모 전쟁연습의 침략적 성격과 위험성을 밝히면서 철회할 것을 강력요구하며 ‘이 전쟁연습 실시 여부에 따라 미국

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북측의 요구 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도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인사들 한결같이 북침전쟁 연습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미연합사는 예고한 대로 남녘땅 전 지역에서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전략폭격기, 각종 장갑차 등 군사장비와 주한 미군 12,000명, 미본토와 해외주둔 미군 14,000명에 한국군 20,000명이 동원되는 전시 증원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을 마쳤다. 예년에 비해 두 배나 긴 연습기간에 한미연합군은 경남 진해항에서 미 해병대의 대 테러 보안팀과 미 해군이 참여하는 항만 방어훈련(9일) 경기도 파주 로드리게스 미 8군 종합훈련장에서 한·미 해병대의 시가전 훈련(10일) 부산항에서 키리졸브 연습에 참가차 입항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호 공개(11일), 강원도 동해항에서 미 이지스 구축함 채피(Uss Chaffe)호 공개(12일),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의 한·미 해병대의 실사격 훈련(16~17일), 진해에서 미 해군공병대의 활주로 복구훈련(19일), 포항에서 한미해병이 연합한 산악훈련(20일) 등은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한미연합사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방어적인 군사준비 태세 연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을 2007년까지 진행되었던 ‘한반도유사시’ 미국의 대규모 증원군을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으로 이동(onward movement),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하는 전투작전에 통합(integration)시키는 전반적 연습내용과 다름이 없었다. 예로써 광양, 부산, 진해에 물자 및 병력을 군산, 오산, 대구에 병력 및 물자를 <수용>하고, 캠프 캐롤(대구, 왜관)에 배치된 미육군 사전 배치물자(APE)와 해군, 해병대의 사전배치선단에 의해 전개되는 장비 및 물자가 병력과 결합 <대기>하여 전술 집결지로 <이동>하여 한미연합사령관이 하달하는 작전임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전장으로 <통합> 운용되고 있었다.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역시 '북한군 격멸'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는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북침전쟁 연습이다. 작계 5027 5 단계에서는 ① 미군의 신속 억제력 배치, ② 북측의 전략 목표 파괴, ③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④ 북측 점령 및 군사 통제 확립, ⑤ 한반도 통일(무력 통일) 순으로 되어 있다.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한, 그리고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거두지 않는 한 이같은 북침전쟁연습은 이어질 것이다. 1969년부터 실시된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 훈련이 1971년 이름을 바꿔 프리덤 볼트(Freedom Volt)로 1976년엔 팀 스피리트(Team Spirit)로 이름을 바꿔 본격적인 핵선제 공격연습으로 이어오다가 이북은 물론 이남의 평화 통일 세력이 줄기차게 폐기를 주장하여 1994년에 중단되었으나 1995년부터 다시 한미연합전시중원/독수리 연습으로 2007년까지 이어오다가 위에서 말했듯이 오늘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으로 감행되고 있다. 이들 모든 전쟁 연습은 연습 목적과 규모, 첨단 무기 체계에서 핵선제 북침전쟁연습이다. 미국은 이미 북을 겨냥한 핵선제 공격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2002년 핵태세 검토보고서)연습 때마다 동원되고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동원장비만으로도 방어연습이란 말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짓말이다. 이번 연습에 온 존 스테니스호(96,000톤) 핵추진 항공모함 하나만 해도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등 핵잠수함 10여대의 제3항모 강습전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체 길이 317 m, 활주로 길이 332 m, 면적이 18,211 m²으로 24층 높이의 80여 m에 축구장 3배 크기라고 한다. 5,000명의 승조원에 슈퍼 호넷(F/A - 18 Z/F) 전투기,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2000), 전자 전기 EA-6B 등 항공기 80여대와 함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타격할 수 있는 AGM-88(HARM)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실전 배치된 채피함(Chaffee)은 미 해군의 이지스급 구축함 가운데 신형에 속하고 1000 km 이상 떨어진 비행체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위성 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S.M-3 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대함미사일, 그리고 1, 2초에 1발씩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 96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채프함은 길이 155.3 m, 폭 20m, 배수톤수 9,200 ton, 최대시속 56 km 승조원 350명에 5인치 함포도 갖추고 있다.

이같은 한·미 연합사의 북침전쟁연습에 이어 최근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준비와 관련하여 또 다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북은 지난 2.16일 최근 한·미·일 등에서 나오고 있는 북의 미사일 발사설과 관련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임을 밝혔고, 24일에는 조선우주공간 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 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3월 12일 외무성 해사국장은 오는 4월4일~8일 사이에 시험 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그리고 IMO 결의 706호에 따라 동해의 북위 40도 41분 44초, 동경 135도 34분 45초, 북위 40도 16분 34초, 동경 135도 30분 22초, 북위 40도 30분 50초가 1차 추진체 낙하지점이고 2차 낙하좌표는 태평양지역으로 북위 34도 35분 42초, 동경 164도 40초 42분, 북위 31도 22분 22초, 동경 172도 18분 36초, 북위 29도 55분 53초, 동경 172도 13분 47초, 북위 33도 09분 16초, 동경 164도 35분 42초로 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북은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에 가입했다고 했으며, 이는 '평화적인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

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최근인 3월 21일엔 다음달 4~8일 사이 예정된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자신들의 상공을 통과하는 2개의 항로를 폐쇄하겠다는 의사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은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준비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른바 '대포동 2호' 발사가 임박했다며, 이는 유엔안보리 결정 1718호 위반으로 강력대응(제재)할 것임을 말해왔다. 그러나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이며 그 인공위성 이름과 발사체이름을 밝히고 언제 어느 지점에 위성 발사 추진체가 떨어질 것 이란 좌표까지 국제 해사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했음에도 그 억지 주장과 강제제재 위협발언을 이어갔다.

미국은 자국영토를 향해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하겠다고 했으며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했던 이지스 구축함 2척을 동해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북한의 로켓 탐지 추적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존 매케인함(9200톤) 등 이지스 구축함은 1000km 이내의 모든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4대의 고정식 레이더를 장착했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대공 미사일과 1.2초에 1발씩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 96개를 갖추고 있다. 또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비 미사일 발사 감시기인 'RC-135S'를 지난 13일 오키나와의 가테나 비행기지에 배치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이 전 자정찰기는 미국에 3대밖에 없는데 2대를 배치했다. 적외선 센서로 미사일을 추적 탄도와 성능 분석 발사 지점과 탄착지점을 밝혀낼 수 있다고 한다. 일본도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유엔 안보리 결정위반이라며 대북수출금지 품목 확대와 제재기간 연장 등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 했고 미국과 함께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배치하고 있다. 한국정

부의 유명한 외교통상부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인공위성이라 해도 대량살상무기 방지확산구상(WMD-PSI)에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 이라 했고, 23일 외교통상부는 확정적으로 '전면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국방부도 같은 말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인공위성이라는데 굳이 미사일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나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자세들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면서 비확산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인공위성은 어떤 특정한 나라만 쏘아올릴 권리는 없다. 우주의 평화적인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북이 시험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겠다는 것 또한 우주 공간의 과학적 이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이다. 이를 제재하려는 미국은 2002년 3월까지만 626개를 쏘아올렸고 (50여회실패) 세계의 인공위성 872개 중 443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1975년 9월 N-1 로켓을 이용 기술시험위성을 발사한 이래 그 뒤 17년간에만 24개의 위성을 발사했고 2003년 이후에도 N-2A 5호기를 비롯해 11호기까지 연속하여 쏘아올렸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의 위성들은 이북을 빈틈없이 감시하는 첩보위성이 많다. 우리 땅 상공을 지나가는 인공위성이 404개나 되고 그 가운데 미국 140개, 러시아 90개, 일본 28개, 중국 16개, 한국 인공위성도 4개 있다. 특히 남측 정부도 고흥군 봉래면 예대리 외나로도에 나로우주센터가 있고 2015년까지 이 우주센터에서 9개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다. 아주 최근에는 이란에서 인공위성 '오미드'를 사피르 2호로 발사 성공했다. 이러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PSI에 전면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전면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PSI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

량 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2003년 미구 부시 정부 주도로 발족한 육·해·공 차단활동이며 특히 이북의 공, 해상 봉쇄 등을 목적으로 한 국제협력 체제이다. 참여정부는 2006년 이북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도 남북 사이 군사적 충돌 등을 염려하여 오히려 자격으로 5개 분야에만 협력하고 ○ PSI 훈련의 정식 참여, ○ 역내 훈련 때 물질 지원, ○ 역외 차단 훈련 때 물질 지원 등 3개 분야는 참여하지 않았었다. PSI는 공해상에서도 테러지원과 관련됐다고 의심할 경우 민간 인선박을 세워 수색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한국이 미국 등과 협력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선박을 강제로 세워검색하는 <실제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한겨레신문) 분명한 주권침해 행위이고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다른 여러 나라들의 무기거래는 접어두고라도 미국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 수출국이 아니었던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휴전선이 남지역에 핵무기와 열우라늄탄을 들여오지 않았던가. 페트리엇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공중급유기 등을 사고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가. 똥 문은 개 겨문은 개 나무라기이다 이는 동족을 적으로 하는 외세와의 군사동

맹에서 비롯되고 있다 대결을 전쟁을 부르고 PSI전면 참여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첫째 반복대결정책을 포기하고, 온겨레의 뜻으로 합의한 6.15 10.4선언 이행의지와 그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

둘째 동족을 적으로 하는 어떠한 형태의 한미연합북침전쟁연습은 영구히 중단해야 한다.

셋째 남북사이 군사적 충돌위기를 몰아갈 PSI참여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넷째 9.19공동성명 2.13합의 성실히 이행, 평화와 공동번영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미군강점 64년은 너무 길었다. 주한미군은 대량살상무기로 모두 거두어 가지고 제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알립니다

4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128회)

- 일 시 : 2009년 4월 14일 (화) 늦은 6시
- 장 소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 작 품 명 : 조선의 별 2부(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0년 제작, 90분 상영)
- 줄 거 리 : 1920년대말부터 1930년대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젊은날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 모습을 그려낸 이북의 대표적인 혁명영화. 제2부는 편협한 민족주의자, 종파주의자의 음모를 물리치고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는 활동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중의 한명인 김혁이 혁명사가 '조선의 별'을 보급하다 설은주와 함께 일본경찰 미행에 걸려 장렬히 전사한다.
- 문 의 : 한찬욱 (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상징인 민가협 조순덕 전상임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공안당국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민가협 어머니인 조순덕 전상임의장을 구속하여 이명박독재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조순덕 전의장이 한나라당 전여옥의원 폭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점을 현장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며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순덕 전의장은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게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목격자의 단순진술만을 구속사유로 삼은 것은 경찰 나아가서 이명박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전여옥의원의,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전치 8주에 해당되는 부상은 교통사고 중상해정도가 넘어야 하고 가령 손가락절단의 부상도 전치 8주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흔에 가까운 할머니에게 20초도 안되는 시간에 멱살을 붙잡힌 것으로 전치8주의 부상이라니!

사건 후 여러 경로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보좌관과 나란히 씩씩대며, 두 눈 똑바로 뜨

고 걸어가는 모습으로도 당시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음에도 조순덕 전민가협의장을 구속한 것은 경찰이 수구보수정권 한나라당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전여옥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려는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군부독재와 권위주의시대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자 이외에도 구금, 수배, 강제징집, 취업거부를 당한 인사들에 대한 정당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한 법률로서 유가협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400일이 넘게 노상농성을 하는 등 끈질긴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짓밟아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전여옥의원에 대한 어머니들의 분노와 항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과거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싸워 온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민가협의 어머니들의 그 분노에 비해 오히려 전여옥의원에 대한 우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명박정권의 반민주적인 온갖 부당한 정책의 중심에 선 전여옥의원에 대한 어머니들의 항의는 정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여옥의원이 보인 작태와 영등포경찰서의 과잉충성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표적수사에 의한 자작극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조순덕 민가협전의장은 몸이 불편한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부촉하여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기습상정 등에 항의하려고 그 장소에 갔을 뿐으로 경찰조사에서 전여옥의원에 대한 무리한 폭행이 결코 없었음을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고 또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은 민주화투쟁의 산증인인 조순덕 전의장을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폄하 모독하는 전여옥의원에 대한 항의 사건으로 구속된 이정이 부산 민가협 의장과 조순덕 민가협 전상임의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2009년 3월 18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모시는 글

21차 정기총회에 모십니다.

찬바람이 아직 가지지 않고 느닷없이 진눈개비가 흩날려도 겨울을 이기고 기어이 봄은 왔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양심수후원회가 20돌 21차 총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안으로 또 밖으로 함께하여 이명박 정권의 불의함에 맞서 지내온 1년 동안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은 양심수후원회의 밑거름이자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다시 21차 총회를 맞아 후원회 사업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반미 자주통일 운동의 결의를 다지고 확고한 사업계획을 채택하여 회원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날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4월 25일 (토) 오후 3시
- 장 소 :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 연 락 : 권호현 017-260-3333 / 김호현 017-789-0809



산행광고

- 4월 산행 -

6·15 한마음산악회 사월 산행은 북한산입니다

- 장 소 : 북한산
- 일 시 : 2009년 4월 18일 (일) 오전 9시
- 모이는 곳 : 우이동 종점 그린파크 앞
- 준 비 물 : 간단한 도시락과 회비 3000원

어머니- 그 누구도 어머니의 선량함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임미영 | 후원회사무국장



▲양심수 후원회 시사강좌에서



▲지난 봄 만남의 집 트랙에서

어머니. 유난히 3월 기온이 초여름의 기온을 웃돌았던 이틀 동안 도로변 개나리가, 신수유가 노랑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마당의 목련도 길게 뻗은 가지 끝에 우유빛 꽃망울을 막 터트릴 참으로 맺혀있습니다.

만남의 집 마당에 김선생님께서 찬바람이 가시기도 전에 땅속에 묻었던 씨앗이 어느새 아이들 손바닥만한 이파리를 피워 올려 금방이라도 쉼아서 밥상에 올릴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런 봄의 기운들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는다해도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속에 벌써 새싹과 꽃으로 가득하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계단 사이로 비집고 올라온 속절없는 풀한 포기조차 신기해하고 예뻐하여 연신 감탄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봄에 대한 찬사는 정말이지 어머니의 사랑스런 미소가 그곳에 갇혀 있는 동안 어두운 탄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한동안 아침이면 정말 그럴 리가 없는, 그것은 꿈속에나 일어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노랑고 빨간 색 치마 차려입고 눈부신 초록의 들녘으로 봄나들이 가야하는 때에 감옥에 계시다니요.

처음에 정신없어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 오는 동료들 지인들 선생님들에게 눈물 글썽이며 애써 웃음을 보여줄 때만 해도 날이 새면 "아따 그곳은 갈 때가 못되더만요!"하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마주 앉아 어머니 좋아하시는 부추전 구워놓고 며칠 다녀오신 소감이랑 웃으며 들을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문 선생님 손 맞잡고 한 일 없이 유치장 신세져서 걱정 끼쳤다고 송구스럽단 인사라도 하러 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석방대책위가 꾸러지고 나날이 면회실이 넘쳐나도 그러한들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시간에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한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마디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서 접견실문 뒤로 푸르지도 희지도 않은 색깔의 수의를 입은 마음고생으로 수척해진 어머니를 그만 보내야 하는 것을 말입니다.

어찌 함부로 감히 저희가 어머니에게 그곳에서 잘 있어달라고, 맘 단단히 먹고 투쟁하는 맘으로 계셔달라고 다른 감옥의 양심수들에게 하는 부탁을 할 수 있을는지요.

언제부터인가 이세상은 불의와 불온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어머니를 감옥에 가둔 이 현실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욕지기라도 뱉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안에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자고새면 박정희독재정권의 망령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분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유엔 이사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자국의 인권상황을 이 지경으로 악화시켜놓고 뻔뻔스럽게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서 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주권행사가 아니라 감히 말하지만 행패이고 악행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침을 개같은!이라는 욕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독재 권력의 횡포가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그 만행 또한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80년 군부독재정권은 사회질서 회복이니 선진조국이니 하는 명분을 등에 업고 사법부 경찰 등 폭압 기구들을 정권 유지 전면에 내세우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국가 보안법 등을 개악하고 언론사를 통폐합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반대세력들을 탄압하자 이에 민중들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피의 저항으로 군부독재의 막을 내리게 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 10년 만에 다시 권력을 되찾은 한나라당은 자본과 신자유주의 그 중심부에서 그들 지배이데올로기이며 그것이 자신들을 영원히 보위해 줄 것이라 믿는 반노동 반통일 반민중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연일 민주주의 깃발을 더러운 그들의 탐욕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외의 경제침체가 이미 공황기로 접어들었고 그런 가운데 유독 이명박 정부의 경제지표는 그 폭풍에서 비껴나 안전지대라고 확보하고 있는 듯이 일자리 창출이니 사대강살리기 뉴타운 건설 등의 분주함을 자랑하며 국민을 오도하는 한편 이명박정권은 이 위중한 때를 호기로 삼아 패권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위해 전방위로 그 방해되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 체포 구속을 남발하여 공공연하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만도 벌써 용산참사관련 전철연동지들을 마구잡이로 구속시키고 어제 YTN의 노종면노조위원장을 오늘 이춘근 MBC PD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명박정권은 필연적으로 남북관계의 단절 경제침체 등 실정에 대한 면피로 독재 권력을 강

화하는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도 설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들을 잡아가두는 등 민주화운동의 피어린 결과물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의 구속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치명적인 역행입니다. 이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굳이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의 아들딸들이 그 많은 노동자가 그 많은 진보적 활동가들이 피의 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놓은 민주주의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곱감 꼬치에서 곱감 빼 먹듯 하여 앞서간 분들의 노고와 희생 헛되이 하지 않았는지 하고 자책감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함부로 경찰서 앞을 지나가다가 넘어지지도 말아야 될 듯합니다.

함부로 넘어졌다가는 공연히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될 것이고 사안에 따라 구속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쫓불만 들어도 구속될 것이고 도둑을 도둑이라 해도, 불의한 것에 대한 우리들의 최소한의 저항, 가난한 것, 아픈 것이 모든 이유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켰다고 잡혀갈 판입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첨단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유익함을 가져다줄까요.

범죄 예방한다고, 시민들을 위한답시고 설치된 CCTV같은 첨단 기술적 장치는 바로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통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처럼 그것은 결국 지배자들의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 설치된 CCTV가 그 모든 정황을 정확히 담아내고 있는데도 그것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자 결국에는 엉뚱하게 그들의 의도에 맞는 목격자를 내세워 불구속수사의 법칙을 어겨가며 어머니를 구속시킨 것입니다. 그날 목격자로 말하자면 200여명도 더 넘었습니다. 다정하고 마음 여러 눈물과 웃음이 많은

어머니가 난데없이 감옥으로 가게 된 것은 여자들이여 모두 테러리스트가 되자고 외치던 전여옥의원이 드디어 일흔 가까운 할머니에게 테러 당했다고 병원에서 안대차고 생소한 결과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 당 의원 챙기기에 급급했던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는 "국회가 테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면서 "국회 의장은 보안검색을 더 강화하고 수사당국은 명명백백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나라당은 물론이요 여타의 국민을 기만하고 배반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의원들은 의정활동 안 해도 됩니다. 그들의 의정활동이란 것이 기껏 국토를 두 동강내고 중형으로 파 뒤집고 약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골라 죽이고 서울 한 복판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세금 퍼부으며 미군 주둔시키고 미국의 주구가 되어 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물어뜯는 악법 제정하고 그런 의정활동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우리를 도우는 것일 겁니다.

도대체 무고한 시민들은 제 터전에서 몰아내다 못해 권력의 하수인들을 동원하여 죽이고 그 참담한 죽음들은 땅에 묻지도 못할 상황에서도 허수아비처럼 입 꼭 닫고 있던 놈들이 분별력 없이 정신향폐해진 전여옥의원의 쇼에 같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보도 자료까지 내가면서 당장 병문안가고 경찰은 쟁싸게 5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있지도 않은 일 만들어냈던 것.....지들 말처럼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데 있습니까?

백날 수사니 하고 떠들어보야 아무것도 나올 것 없는 줄 그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일제 강점기 이후 해온 일이란 것이 주로 의로운 사람 무고한 사람 하지 않은 걸 했다고 뒤집어 써서 온전한 사람들 범죄자로 만들어 감옥 보내고 죽이고 온 가족을 하루아침에 악몽보다 더한 삶으로 내몰아왔던 걸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이까짓 우격다짐이야 누워 떡먹기 보다 더 쉬웠을 것입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말 밖에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침에 눈뜨면 이놈의 망하고야 말 정권이 자충수를 두어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머니라면 능히 강하여 놈들에게 당당히 맞서 그들이 자멸의 시간을 앞당기는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다 제쳐놓고라도 어머니의 선량함만으로도 우리에게 넘쳐나는 힘이 됩니다.

그저 답답하고 멍하기만 하던 우리들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약속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꼭 그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과만씀 드립니다.

2월 소식지 발행이 후원회 내부 사정으로 늦어졌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양심수님들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슬픈일이 있었어요



비전향 장기수 송영길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출소장기수 송영길 선생님께서 3월13일 오전에 지병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환해도 연백출신(1929년)으로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참전하였으며 김중하 선생님과 함께 충청도당에서 도당 지휘부호위병활동 등의 빨치산 활동을 하셨습니다. 출소 후 생활하시다가 최근 몇 년은 건강이 나빠지셔서 마이홈 요양병원

에서 투병생활을 하였고, 투병생활로 인해 지역에서도 자주 뵙지를 못했습니다.

살아 생전 고향 딸에 가실 수는 없지만 유골이라도 신념의 고향으로 보내드리려 화장 후 현대공원 납골당에 안치하였다가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면 고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

빨치산 여전사 손영심선생님 별세



눈덮인 산하 열사의 계절을 네번이나 격으며 끊임없는 대공세의 극한상황에서도 역사의 현장을 지키셨던 여전사의 강인함에도 암이라는 병마와의 싸움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것 같습니다. 손영심 선생님의 암은 이미 폐를 지나 다른부위까지 전이되어 끝내 평생염원이셨던 통일조국 그날을 보시지 못한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살아생전의 말씀에 따라 화장을 하여 선생님께서 젊음을 불태웠던 전라남도 광양 백운산의 한새 부근에 함께 싸우셨던 옛 동지들과 사회단체 성원들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 아드님의 분향제배와 추도의례에 이어 이규재 범남북의 집, 임방규 통일광장 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추도말씀과 백운산에 함께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던 정관호 선생님의 추도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양희철 선생님의 추도시, 상주의 인사말이있었고 함께한 이들의 화해로 추도행사를 마쳤습니다.

손영심 선생님 약력

- 1931년 :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담양에서 성장.
- 1948년 : 광주사범학교 졸업. 재학중 찬탁학생 그룹을 이끄는.
보성 회천국민학교에서 1년 간 교사생활.
- 1949년 : 진학을 위해 전남여고로 편입학.
- 1950년 : 전쟁수행 시기에는 조선로동당 광주시당에서 일함.
- 1950.9.28후퇴 시기 : 광주시당과 함께 무등산으로 입산, 유격투쟁 대 열에 끼임.
무장유격투쟁 과정에서 오라버니 손채만, 남동생 손형만, 외삼촌 양권태 들 전사.
- 1951년 : 도당으로 소환되어 선전부 지도원으로 일함. 1951년~52년 계엄령하 제1차대침공을 전남 백운산에서 겪음.
- 1953년 : 제5지구당으로 소환되어 지리산으로 건너감.
- 1954년 : 1953년~54년 제2차대침공 때 지리산에서 생포.
- 그 이후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피검, 2년 간 옥살이를 함.
- 1960년 :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둬.
- 2000년 : 비전향장기수 북송을 전후하여 유운형 선생 등 선배들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음.
빨치산 추모행사 및 빨치산 위령비 건립 준비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활동 지원했음.
- 그 동안 :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음.
- 2009년 : 3월 27일 지병으로 타계, 향년 79세.
현재 유족으로는 국승윤(장남), 승한(차남), 사라(손녀)가 있음.

- 정관호 작성 -

님을 보내며

- 손영심을 묻는 날 -

진달래 꽃동산으로
 님이 가신다
 굽이굽이 수만 리 살아왔던 길로
 님이 돌아가신다
 고운님들 먼저 간 백운산 품에
 함께 끼이려고 여기 혼백으로 왔노라

언제 우리가 영생을 바랐으랴만
 여기 땅을 후벼파고
 님을 묻는 손들 죄가 많구나
 생시에 지켜달라던 유언을 좇아
 남은 자가 떠난 자를 보내는 예(禮)라지만
 왜 하필 우리가 그 삽자루를 쥐어야 하는가

이제 슬프다는 말은 오히려 사치다
 가시는 님만 외로이 더듬는 황천길
 촛불 휘황히 켜들 그 칠혹의 어둠
 무한 침묵의 길을 어이 다 밝히려
 무슨 말로 영하직하는 이를 보낼 것인가
 허허로이 털고 가시는 님아

하지만 먼저 간 만큼 우리 제사를 받는 님아
 삶이 무상하니 우리도 불원 뒤따를 터인데
 그대 없이 누가 굿긴 일을 뒷갈망할 것인가
 돌아서듯 훌쩍 떠나버린 무정한 인신아

광양만 올리바람이 한재 마루를 넘듯
 님이 가신다
 지리산 내리바람에 섬진강 물안개 사위듯
 높이높이 떠나가신다

두 아이의 어머니요, 친구요 동지인 님아
 잘 가시라

사랑도 미움도, 설움도 분노도
 온갖 시름 걱정 짐스러운 걸
 다 벗어던지고 빛살처럼 떠나가시라
 시공이 닿지 않는 아득함에 자리하고
 고단한 몸 편이 잠재우시라

때가 이르러 님을 드러내는 날
 높이 쌓은 탑에 구리이름으로 다시 오시라
 남도 산사람들에게 일찍 봄을 알리는
 아구사리 꽃향기로 환생하시라

중병을 앓으면서도 늘 걱정이던
 사랑하는 아들과 손녀 들 모두
 모진 일 당하지 않고 저희 뜻대로 살도록
 천상에서나마 지키고 보살펴주시라

이제 님을 차가운 땅 속에 묻겠노라
 영영 묻겠노라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한 님아
 손영심 님아!

2009년 3월 30일
 전남 백운산 한재에서 정관호



권승우 님의 편지

모든 진보세력이여 단결하라

전국의 1천만 노동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3번 권승우 저의 모임이름으로 인사올립니다.

바야흐르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생동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정작 날씨는 좋아지건만 현실의 겨울은 더욱더 추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들리는 건 동지여러분들의 구속소식과 생살을 찢는 듯한 <경제한파>와 젊은 동지들의 <실직> 및 <취업전쟁 소식> 및 가난하고 험벗은 <서민들> 이야기뿐이군요

이런 암울하고 처참한 현실 속에서 저는 차라리 복받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현실의 반드시 깨야 할 벽에 부딪쳐 지금 이 순간에도 투쟁하시는 동지들의 투혼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노동자계급이 나아가길과 올바른 방향제시를 잡고 싶은 생각이 많았으나 너무 거창한 주제가 될 것 같고 감히 제가 건들 수 없는 문제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와 학습의 문제 일제시대 혁명가가 이야기 NL과 PD의 주관적 견해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을까 합니다.

저의 아버님은 평생을 군대에서만 계셨고 할머니님께서도 월남하신분이라 저는 반공교육을 강하게 받았다고도 생각합니다.

89년 제가 고3일 때 노태우과소정권은 구로구청 부정투표사건을 저질렀고 우연히 전 구로구청을 지나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용산사태처럼 옥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로서는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이었고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현실에 고민했고 대학을 가서야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그 후 교육을 통해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운동가라고 지칭할 수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부딪쳐봤을 때 운동가는 우선 주변의 불의적이고 가난하고 험벗은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지금도 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많은 선배혁명가들이 그랬고 폭압과 불의에 항거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그분들을 보면서 친일주의자들이 일제나 자본가에 붙어서 호위호식할 때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선배혁명가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다닐 때 지금 생각해 보면 학생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개량주의적이고 운동을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귀족주의적이며 자기인위적인 분들을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대부분이 활동을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 초반 남한을 뒤흔들었던 <사노맹사건>을 지금도 분석해보면 물론 그분들은 가장 투철한 혁명가들이시지만 한편에서는 귀족주의적이고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혁명성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 아닌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니뭐니해도 노동자계급의 지도자란 위치는 노동자계급의 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수많은 운동가들 중에는 자기 이익적이고 운동가란 걸 내세워 오히려 계급에 반대하는 행위를 일삼는 운동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가들은 철저한 자기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서도 시민운동가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단식을 왜 하느냐?” “투쟁을 한다고 무엇이 바뀌는가?” 등등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와 말을 하며 계급의 투쟁의지를 꺾고 또한 아마도 그분들은 출소하면 그러한 자기의 기회주의적인 습성을 백 번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도덕성과 계급의식 등이 이번의 민노총사건으로 말미암아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민노총은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해질 것이며 강경파분들이 민노총을 지휘하게 되면 민중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MB정권과 더욱 강경한 투쟁을 벌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득 작년 초

불투쟁 때를 돌이켜보면 분명히 민노통이 지휘를 하고 투쟁을 했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갈팡지팡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갔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저는 현재나 앞으로도 일제시대의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나 혁명성을 지금의 우리들이 본받고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하려는 투철한 정신을 가지신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의 아저씨이며 아는 형처럼 모든 민중들에게 너무나 가까운 이웃처럼 운동가는 활동해야 하며 일제시대 사회주의자들은 마치 가족처럼 푸근하면서 친밀한 모습으로 왔다가 쓸쓸히 가셨던 것입니다. 학습문제만 해도 제가 대학에서 학습을 받을 때도 다소 확일적이고 강제를 띤 학습을 했었고 저 스스로 그런 방식이 싫어서 학습을 하지않고 제 스스로 공부도 안한 것이 후회도 됩니다. 일제시대 혁명가들이 학습상황만 보더라도 그분들은 확일적이지 않았고 자유로웠으며 절대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분들은 노동자편에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습이나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치든지 경제든지 어떤 분야든지 설사 초등학교만 나온 분이 있더라도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과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나가게 되면 늦게나마 소모임적인 학습을 할까도 생각합니다. 결코 기회주의적이나 개량주의적이지 않은 학습에서 시작해 작은 출발을 할려고 하니 동지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제시대 때 가장 위대한 항일운동가는 사회주의자였고 그분들이야말로 노동자등지 뿐만 아니라 전 민중이 존경해야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는 감옥생활과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견디면서 그분들은 단 한번도 민중의 고통을 모른척하지 않았고 끝끝내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까지 계급해방을 부르짖었습니다.

양반태생이면서도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일제에 항거하고 무장투쟁을 지휘했던 이현상선생님은 세계의 어떤 혁명가보다도 뛰어나시다고 생각하며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왜곡과 질곡 속에 외면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투쟁성과 혁명성은 전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며 지금의 많은 활동가들이 선생님의 활동성과 혁명성을 본받고 따라야한다고 전 반드시 생각합니다.

동지여러분!

이현상선생님은 비록 해방을 이루시지는 못했지만 그 묘지는 북의 혁명열사릉에 제 1호 가묘로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생님을 모신 북한에 대해 우리 민중들은 조.중.동에 휩쓸리지 말고 진실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수한 언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핵을 폐기해야 된다” “남한도발을 그만뒀야 한다” 등등 참으로 꼴불견스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경향이나 한겨레조차도 북한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최강대국인 미국에게 지금 전 세계 중에서 맞짱을 뜰 수 있는 나라는 아마도 북한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미국놈들은 자기들의 전쟁무기를 소화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약탈과 살인만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라크전쟁 등 전세계에 자기네들의 전쟁합리화를 주장하며 극악의 전쟁준비만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미국의 포악함에 눈을 뜨며 일찍이 항거했으나 무기나 힘에서 엄청 밀리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놈들이 엄청난 경제압박을 가하는 중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미국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핵무기로 미국놈들을 무릎꿇리고 있습니다. 북한노동자들은 미국놈들에게 무수한 경제적 꺾박과 남한여론의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고도의 과학력과 기술력을 미국타도를 제 1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을 미사일 공격, 핵무기발사 위협, 세습체제, 마약밀매, 불법화폐 밀매 등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험담과 북한 깽부수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대로 반공사상이 진짜일까요.

100번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로 믿게 만드는 조중동의 간악한 여론 공격을 노동자계급은 이제 반드시 깨부셔야만 합니다.

북한의 세습체계가 문제라면 남한의 기업 세습체계는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삼성같은 경우는 세습을 하고 엄청난 세금을 탈루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받았으며 남한의 어떠한 재벌도 세습을 하며 자기들의 부를 대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삼성 이재용같은 경우 재산만 1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전 그런 사실을 보고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6.25때 인민군이 남한에 있을 때 어떤 역사적 증언을 들어도 국군과 미국군의 양민학살에 비교해서 인민군은 말 그대로 인민을 위하는 인민군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민군도 물론 전쟁과중이라 실수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국군과 미국군에 비하면 아주 소수였음이 역사기록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핵을 쏜다며 왜 지금 현재에 사용을 안하겠습니까?

오히려 간첩을 보낸 것도 남한이 엄청나게 더 많이 보냈음이 드러났으며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놈들은 팀스프리트 훈련이다 뭐다하면서 한반도를 초토화할 준비를 매일 하고 있으며 남한정부는 서해안에서 북한에 무력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보면 북한은 강인한 인내력으로 남한의 도발에 저항한다면서 철저한 사상과 고도의 과학력을 바탕으로 남한도발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이가 <세기도 못먹는데 무슨 사회주의나>면서 쥐새끼다운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감히 쥐새끼가 아니면 저런 말을 생각 못하고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이명박 머리속에는 북한이란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북한은 한 동포가 아니라 적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또한 한반도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놈들이 행한 짓거리는 분명히 역사에 반하는 이 나라 노동자계급을 말살시킬 천인공노할 짓들만 행하고 계획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양민학살과 노동자계급 말살과 그것도 모자라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착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말대로 북한이 마약을 밀매하고 화폐를 위조한다면 왜 아직도 중국과는 원활한 거래를 하며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거래를 하며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이루어냈는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계급의 노동해방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하며 목표가 없이는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놈들이나 자본가들은 아무리 자본주의를 좋게 만들고 생산력이 고도화된다고 해도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착취와 탄압 속에서만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있으며 결국 자본주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비정규직문제, 임금 처우문제, 피눈물 없는 착취의 문제, 점점 극명화되는 빈부격차, 공안통치 등 모든 문제가 노동자계급의 목을 죄어올 것이며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은 다시금 사회주의에 대한 각성과 학습과 사회주의 쟁취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속되기 전 진보세력의 사상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 아직 진보세력내에는 NL과 PD니 CA니하는 격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 PD쪽에 가까웠고 NL동지들과는 거리가 존재했었습니다. 사노맹이 주장하는 남한만의 새로운 사회주의건설이 유일한 길이고 그러므로 남한 노동자계급의 힘으로만 건설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격론은 우리의 투쟁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전 생각했으며 그러한 토론에 빠지기보다는 노동자계급이 투쟁하는데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절대로 달리 생각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우리의 노동자계급의 우수성을 북한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깨달았고 혁명의 진취성을 이루어냈으므로 우리 노동자계급이 해방된 후 하나라도 배울게 있으면 배워야 하고 더 나아가 통일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동자계급이 일어섰을 때 미국놈들은 반드시 최첨단무기로 노동자학살에 나설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에 대비해야 되며 우리의 동지인 북한노동자분

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며 그러한 길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여기서도 티브이를 보다보면 (9시에 여기서는 끝납니다) F4인가 “꽃보다 남자” 인기하는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신문을 보더라도 그 드라마가 엄청 인기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외국을 나가서 비용을 줄이느라 라면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보면서 참 가슴스런 드라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드라마는 노동자나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부분 1%만의 부자들을 내세우고 드러내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특히 “꽃보다 남자”는 자본주의의 부패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백화점 등에서 VVIP고객들을 위하여 수십억짜리 보트 등 여러 사치품 등을 팔고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노동자계급은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것들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노동자들은 몇 천원을 피같이 아끼며 너무나 처절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불황이고 전세계 어디서나 빈부의 차이는 현저하다고 주절주절 떠들어댁니다. 사실 어떤 문제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한독점자본주의의 문제가 뭐니뭐니해도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정권 때도 노동자탄압과 가진 자만을 우대하는 정책은 계속 고수되어 왔습니다. 정당한 파업을 박살내거나 농성하는 노동자 지도자동지들을 연행하고 농민을 죽이는 등 자본주의 아래에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은 절대로 같이 살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가 계급의 2세 놈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계급의 돈을 착취하여 강남의 고급클럽에서 하루에 몇 천 만원을 쓰면서 밤새도록 술 먹고 놀면서 자기들의 특권인식을 자랑하고 있으며 백화점 등에서는 노동자들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내다팔고 있으며 이 불황속에서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서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노동자계급이 만들어서 가공해서 팔아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됩니까? 노동자가 건물을 짓고 물건을 만들면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굶어주지 않는 정도의 최소한의 임금만 받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드나 1~2명이 모든 것을 차지해버립니다. 우리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나 정작 돌아오는 것은 가난뿐이고 그 가난이 대물림을 하면서 우리의 자식들은 더욱더 비참하게 살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난의 굴레속에서 벗어날려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나 나아진 것은 조금도 없으며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욱더 가지는 꼴만 쳐다보며 소주 잔만 기울일 뿐입니다

20~3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노동자계급이 나아진 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극명한 빈부차를 느끼며 매일 매일 자살만을 생각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정말 너무나 먹고 살수가 없어 일부러 절도를 하고 교도소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노숙자동지분들이 가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았을 때 경찰서 유치장에 벌금 몇 만원을 내지 못하여 무수한 분들이 구속되시고 또한 노숙자분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드시고 술 만드시면서 이 후운 겨울에 인간 이하의 삶을 지하철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건 결코 발전적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상과 이념을 떠나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처참하게 사시는현실의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분들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일부 노동자가 적들을 타도한다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자본가계급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빠져런 반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혁명가란 언제 어느 때라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만 살지 않았고 수많은 민중을 위하여 초개같이 희생하였기에 이날 이때까지 존경받고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았는데 신자본주의가 엄청난 파다생산이 문제로 함몰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맑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본의 탄압이 거세지고 비정규직노동

자가 늘어나고 활동가들조차도 전선에서 이탈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산당선언>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전선에 뛰어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는 일치단결만이 살길이며 MB정권과 자본주의 타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가 없고 빈약한 제 글을 끝까지 봐주신 동지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회를 보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살인정권 부패정권 이명박을 타도하고 노동해방 쟁취하자

- 2009.3.5 서울구치소에서 권승우드림



장옥기 님의 편지

존경하시는 양심수후원회선생님께

양심수후원회선생님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진즉 인사를 드려야 옳음으로 알지만 그러지 못하고 형기가 다되어서 인사드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공동투쟁으로 구속수감되어서 이제 곧 형기를 마치는 전 지부장 장옥기 염치불구하고 인사드림을 용서하십시오.

지난 수감기간 내내 한결같이 보내주신 열정 사랑 정성 후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동지분들의 피땀어린 후원금을 저희들 영치금으로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영치품을 포함해서 값있게 사용 잘 하였습니다. 특히 올 겨울 선생님의 사랑담은 털장갑 덧버선 처음으로 사용했지만 참으로 따뜻하게 사용 잘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단절된 쇠창살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시며 생활하시는 전국의 교도소에 구속된 양심수님들께도 인사드립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 머리쓰고 땀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이 진실인양 호도하는 사람이 주인노릇을 할려니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가봅니다.

언제나 정직하게 땀흘린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올러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양심수후원회선생님 여러분의 뜻을 담아 정의로운 사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 몸과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양심수후원회선생님 여러분의 건강은 모든 이들의 염원입니다. 사랑합니다

- 2009.3.3 목포교도소에서 건설기계노동자 장옥기드림



최용근 님의 편지

구치소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참가기

지난해 촛불이 한창 탄압받을 때 이곳 서울구치소에 저는 강제수용되었고 그때로부터 아홉달이 지난 요즘 수차의 거듭된 항의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종교집회참석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미결이라 안된다고 좀처럼 집회참가허락을 가로막아온 소측에서 종교집회 참가허락을 얻어낸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식투쟁과 국가인군위원회진정 그리고 소장면담 요청 등 끊임없는 투쟁과 항의 그리고 법무부의 시행령으로 적시된 행형법 등의 참가허락이었습니다. 종교집회에 참석하려고 사동에서 종교집회 신청자들이 사동문 앞에서 대기하였고 곧 이어서 인솔자가 마중 나와 종교집회 참석자들의 명단을 확인하여 줄을 맞추어 강당으로 입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수용자들이 모두 예배실 강당에 앉고 보니 미결수용자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오직 저 한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앞에 앉아있던 다른 사동에서 집회에 나온 어떤 분께서 저의 미결수의를 보시고 어째서 기결수 옷을 갈아입고 오지않았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형법에 미결수도 종교집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더니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참가를 소측에서 허락한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배시간을 1시40분에서 준비 2시 도착 그리고 2시반 무렵 예배시작을 하고 예배를 마치니 3시40분이었습니다. 예배시간 동안 수용자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으며 화장실은 허용이 되어도 몸이 불편하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도 퇴정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집회 신청접수는 매주 금요일에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매번 종교집회 신청을 받아가는 것인지 격주로 받아가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참가를 소측에서 이제껏 수용자들의 무지와 구치소의 판단에 의한 수용자들의 관리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종교집회 참가를 불허해 차단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종교의 선택도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 4종류밖에 없어서 양심적 병역 기피자가 많이 수용된 여호와증인이나 또는 이슬람을 신봉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선택의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있든 없든 검찰에 송치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고 나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억압에 의해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자기 주장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미결 수용자는 무죄추정에 의해서 증거의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한 구금자의 모든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화사용과 작업보장 그리고 직업교육과 문화 활동 등이 미결수용자에게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1심 선고형량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저의 이 같은 미결 및 기결수용자의 권익찾기 운동이 저 하나의 투쟁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의 미결수용자의 환경개선과 권익 보호에 기틀을 마련하고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2009. 3. 16. 01.19 최용근

북한산 족두리봉 산행기

김익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

이번 산행은 지난달에 가지 못해서 올해 들어 처음 가는 산행이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집결장소로 가고 있는데 '도착하면 산행회비를 걷어달라'는 송지영누님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지하철3호선 연신내역 개찰구 앞에 도착한 후에 먼저 오신 분들께 인사를 하고 도착하는 회원분들에게 회비를 걷었다.

이번 산행에는 19명이 참가하여 예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몇 분이 술, 안주, 김밥 등을 사러가고 일행은 한참동안 시장통에서 기다리는데 날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이경원형님이 수원에서 오신 아주 무거운 배낭을 대신 어르신들의 긴 배낭끈을 짧게 매어 주었다. 배낭 끈이 길 때에는 너무 힘드신 것 처럼 보였는데 배낭끈을 줄이니 덜 힘드신 것 같았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니 촛불 관련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었다. 등산로 입구 옆으로 선전물을 전시해놓았는데 잘 만든 것 같았다. 권오현 선생님이 촛불 선전전 책임자



분과 안부를 물으려 인사하시는걸로 봐서 서로 잘 아시는것 같아 보였다.

개울가의 작은 절 불광사를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힘든 코스였다. 나는 핸드폰으로 불광

사 사진을 몇 장 찍느라 산행대열 뒤쪽에서 올라갔다. 그런데 김래곤형님이 몸이 불편하신듯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힘들어하셨다. 나는 운동시설이 있는 첫번째 휴식장소에 도착한 후에 김래곤형님이 계속 산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일단 김재선형님이 김래곤형님과 함께 오기로 하고 일행은 다시 산을 올랐다.

응달진 산기슭에는 아직 눈이 더러 남아 있었고 날씨는 더 흐려지고 급기야 가랑비도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랑비는 더 심해지지는 않았고 나중에는 그쳤다.

산에 올라갈수록 주변의 멋드러진 바위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도시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져 갔다.

어느 정도 가다가 호랑이굴 같은 동굴이 보이는 곳에서 중간 휴식을 하면서 흥어 안주로 막걸리를 마셨다. 막걸리의 시금털털한 맛과 흥어의 푹 쏘는 맛이 한데 어울어져 절묘한 맛을 선사했다. 일행은 단체사진을 찍고 다시

족두리처럼 생겼다는 족두리봉을 향해 산행을 계속했다.

족두리봉 바로 밑에 까지 가서 올려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과연 올라갈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들었다. 어르신들도 계시고 해서 족두리봉에는 안 올라갈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다.

족두리봉에 올라가는 길은 사람이 너무 많고 위험해서 양방통행이 안되어 한참동안 기다리다가 올라가곤 했다.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족두리봉 정상에 올라가니 탁 트인 전망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 맛에 많은 사람들이 기를 쓰고 산에 올라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몸이 안 좋아서 내려갔을거라고 생각했던 김래곤형님이 우리보다 먼저 정상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지름길로 왔다고 한다. 마른 체구에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였는데 무슨 힘이 그를 족두리봉 정상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생각이 깊어졌다.

일행은 족두리봉 정상에서 단체사진 촬영을 마치고 점심을 먹을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내려갔다. 원래 점심을 정상 바로 밑에서 먹으려고 하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좀 더 아래쪽의 평퍼짐한 넓은 바위로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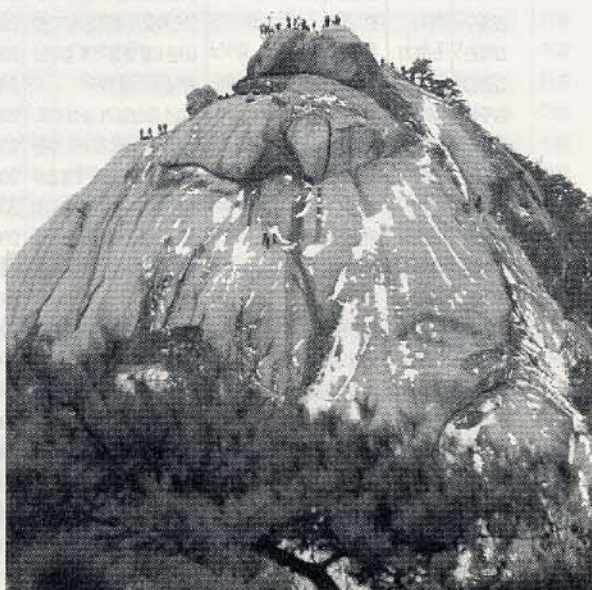
각자가 가져온 음식과 술을 내놓고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특히 송지영누님이 가져온 오이와 고추, 숯 등이 들어가 있는 된장이 인기가 있었고 권오현선생님이 가져오신 막걸리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였다.

점심을 먹고 권오현선생님의 정세와 관련한 산상강연이 있었는데 배도 부르고 술기운도 오르고해서 몰려오는 졸음과 싸우느라 그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산상강연 후에 범민련 남측본부 수련회 초청장을 받은 후에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불광역 부근으로 하산하여 뒷풀이장소를 찾기위해 여기저기 헤매다가 일단 순대국집으로 들어가서 1차 뒷풀이를 했다. 그리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 2차와 3차까지 뒷풀이 했다. 2-3차 뒷풀이에서 술도 좀 취해서인지 참석자들간의 약간의 재미있는 논쟁도 있었지만 무사히 뒷풀이를 끝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청장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함께하는 6.15통일산악회는 마치 가족야유회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반가운 얼굴들과 만나서 회포를 풀고 산의 정기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한달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6.15통일산악회의 산행은 생활의 활력소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9년 3월 25일 현재 총 89명 | 구노회 민기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가미결
강진구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09-27	국보			서울구 15	미결
고희철	노동자	동우회인켄 비정규직분회	부당해고 철회 농성	2009-01-15	공방			평택구 213	미결
곽동기	재야	한국민권연구소	실천연대 사건	2008-09-27	국보			영등포구 3402	미결
권승우	비정규직	"인터넷카페 '열혈 국민' 회원"	촛불항쟁(명동성당앞 투석전)	2008.9.		10월		춘천교 212	기결
권영기	노동자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08년 6월 건설기계 총파업(계천투쟁)	2008.9.4		1년	항소중	청주교 329	미결
권영기	노동자	건설기계(충북)	윤반비인상 등 근로환경개선추구	2008-09-04	방화	1년	항소중	충주교 223	미결
권혜진	재야	홍사단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11-06	집시			서울구 186	미결
길준영	노동자	금속노조 대전충북 ASA지회	"노조인정, 고용승계 투쟁"	2009.2.2				대전교 1199	미결
김동완	노동자	"인터넷 카페 '열혈 국민' 회원"	촛불항쟁(명동성당앞 투석전)	2008.8.17		상고중(10월)		서울구 89	미결
김명호	초합원	전 성균관대 교수	석공 사건	2007.1.17		4년	2010년 1월	의정부교 2068	
김성천	조합원	동작구 정금마을 철대위	원산 4구역 상가 철거 반대투쟁(원산 대합세)	2009.1.20				서울구 161	미결
김순진	조합원	현대미포조선노조	미포조선 용인사업 원적복직투쟁/고공농성	2009.2.9		미결		울산구 38	미결
김승철	비정규직	"인터넷 카페 '열혈 국민' 회원"	촛불항쟁(명동성당앞 투석전)	2008.8.17		상고중(10월)		원주교 2002	미결
김용오	노동자	금속노조 대전충북 ASA지회	"노조인정, 고용승계 투쟁"	2009.2.2				대전교 724	미결
김철규	노동자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의정부 행신동 철거반대 투쟁	2008.11.29				의정부교 1039	미결
김근주	노동자	건설기계(경남)	08년 6월 건설기계총파업	2008-11-11	"집시, 폭력, 업방"			진주교 253	미결
김기완	재야	한국진보연대	수사정보열람	2008-10-07	정통안법	10월	항소중	서울구 195	미결
김대원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01-23	"특공, 화염병"			서울구 187	미결
김동규	재야	한국진보연대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11-06	집시			서울구 155	미결
김복기	재야	청학연대	아적표현물 사건	2008-09-27	국보			서울구 179	미결
김석민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8-11-17	병역법	1년6월	항소중	서울구 1289	미결
김성일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09-27	국보			수원구 302	미결
김성철	재야	전철연(정금)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01-23	"특공, 화염병"			서울구 161	미결
김수억	노동자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07년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2009-01-06	업방			수원구 335	미결
김승렬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2008-10-02	집시	1년6월	항소중	안양교 2638	미결
김재진	노동자	민주노총(전남)	광양항노동조합설립관련	2008-04-04	"특공, 업방"	1년6월	항소중	광주교 3326	미결
김재호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01-23	"특공, 화염병"			서울구 171	미결
김종구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2007-10-16	"집시, 폭력"	1년6월	09-Apr	안동교 844	기결
김종근	노동자	건설기계(인천)	08년 6월 건설기계 총파업	2008-12-08	폭력			인천구 1306	미결
김종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순천)	확약서 이행 촉구	2008-05-10	특공	1년6월	항소중	광주교 3322	미결
김주환	재야	전철연(용산신계)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01-23	"특공, 화염병"			서울구 20	미결
김태수	운수노동자	법한택시노조	법한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2004.2.13		10년		영등포교 1071	
김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08-28	특공			서울구 89	미결
김OO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08-28	특공			서울구 173	미결
남인관	노동자	건설기계(인천)	08년 6월 건설기계 총파업	2008-12-08	폭력			인천구 2247	미결
문경환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09-27	국보			성동구 59	미결
박경식	재야	개인	알심회	2007-02-01	국보	3년6월	10-Aug	광주교 5051	기결
박원석	재야	참여연대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11-06	집시			서울구 115	미결
박정태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1-08	"업방, 특공"	1년6월	상고중	충주교 460	미결
박종기	재야	민주노동당	북한 방문	2006-10-23	국보	2년 6월	09-Mar	전주교 2500	기결
박창도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6월 총파업(08년)	2008-11-07	업방	6월		김천교 215	기결
박OO	재야	개인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모	2009-01-09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구 1862	미결
백성균	재야	미친소닷컴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11-06	집시			서울구 147	미결
손정목	재야	개인	알심회	2006-10-24	국보	4년	10-Oct	대구교 45	기결
신성원	노동자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이젠택 연대투쟁(07년)	2008-10-12	업방			평택구 203	미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가미결
안홍열	학생	대학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8-06-23	병역법	1년6월	10-Feb	청송제2교 1144	기결
양해동	재야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용산참사 범국민 추모제(집회)	2009.2.2				서울구 33	미결
양태조	노동자	민주노총	한미FTA반대(07년) 등	2008-01-07	"집시,특공"	2년	10-Jan	여주교 270	기결
여여성	노동자	전해투	복직촉구 집회관련	2008-05-14	"업방, 명예훼손"	1년	09-May	서울구 1227	기결
유정희	해고노동자	원일교통노조	원일교통노조 민주화투쟁	2008.9		향소중(2년)		영등포구 2729	
윤기진	재야	범청학련	"범청학련, 한총련 불발되(7기)"	2008-02-28	국보	3년	향소중	서울구 96	미결
윤해모	노동자	현대 자동차지부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총파업	2008-11-08	집시			울산구 30	미결
이영도	재야	민주노총 울산본부	미포조선 용인기업 원직복직투쟁(고공농성)	2009.2.9				울산구 35	미결
이길준	군인	의경	촛불집회진입 양심선언	2008-08-07	명령불복종	2년	상고중	안양교 2656	미결
이동우	노동자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임단협(07년 8월)	2008-11-02	업방			수원구 334	미결
이라즈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민간정 소속 중)	2005.12.9		행정소송 중		화성보호소	
이성수	노동자	민주노총(전남)	이랜드-홈에버 연대투쟁(07년)	2008-12-17	특공			순천교 270	미결
이용대	노동자	건설노조(충북)	단체협약 이행촉구	2008-02-15	"집시,폭력"	10월+6월	09-Jun	광주교 3340	기결
이정수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2007-12-24	"집시,폭력"	1년6월	09-Jun	청주교 1225	기결
이정이	재야	6.15남측위부산본부	전여옥의원관련 사건	2008.3.				영등포구4301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4	국보	3년	09-Oct	전주교 2510	기결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	09-Oct	안동교 3010	기결
이충연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01-28	특공			서울구 29	미결
이희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폭력"	1년+1년6월	10-Mar	대구교 1154	기결
인태순		전국철거민연합	용산철거민 참사 규탄 투쟁	2009.3.3				서울구 241	미결
임원기		무직(장애인)	용산참사 범국민 추모제(3/7 집회)	2009.3.7				해회경찰서	미결
임상민	노동자	부산지법 노조	수사정보열람	2008-08-28	정통방법	1년	향소중	서울구 111	미결
정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7년	13-Oct	대전교 4009	기결
전정구	재야	금속노조 대전충북 ASA지회	"노조인정 고용승계 투쟁"	2009.2.2				대전교 1831	미결
전수민	재야	개인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09-11	특공			서울구 62	미결
정영철	재야	개인	찬양고무 사건	2008-12-05	국보			서울구 153	미결
정창수	재야	개인	07년 한미FTA 문서공개	2008-12-19	공무상 비밀누설	9월	향소중	서울구 3750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형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치사"	3년+6월+6월	09-Jun	안동교 15	기결
정창화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1-19	"업방,특공"	1년6월	상고중	충주교 456	미결
조인환	재야	전철연(성남단체)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01-23	"특공, 화염병"			서울구 145	미결
조순덕	재야	민가협	전여옥의원관련사건	2009.03.20				영등포구4336	미결
조순동	노동자	화물연대(대전)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0-22	"업방,특공"	1년6월	10-Feb	순천교 1280	기결
천춘배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6월 총파업(08년)	2008-10-21	폭력	8월+10월	10-Apr	부산구 6038	기결
최성훈	노동자	"인터넷 카페 "열혈 국민" 회원"	촛불항쟁(명동성당앞 투석전)	2008.8.17		상고중(10월)		서울구 50	미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6월	10-Mar	대전교 4003	기결
최용근	노동자	일간지 자국장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06-06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구 1561	미결
최한욱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09-27	국보			서울구 76	미결
최현기	노동자	동우회인컴 비정규직분회	부당해고 철회 농성	2009-01-15	공방			평택교 214	미결
한기남	노동자	건설기계(인천)	08년 6월 건설기계 총파업	2008-12-08	폭력			인천구 1440	미결
한용진	재야	한국진보연대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11-06	집시			서울구 141	미결
허연	재야	한국진보연대(광주전남)	범국민대회(11/11) 관련	2007-11-21	"집시,특공"	1년6월	09-May	정호교 88	기결
홍순찬	노동자	"인터넷 카페 "애국 촛불" 회원"	용산참사 범국민 추모제(3/7 집회)	2009.3.7				해회경찰서	미결
천동근	노동자	건설노조충북건설기계지부	06년 하이닉스-에그칩 비정규직 투쟁	2009.2.23		1년6월		청주교120	기결
노종면	언론인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YTN 노조 총궐기(비정규직 사정 임명 반대 투쟁)	2009.3.24	업무방해			남대문경찰서	

01 서울 청계광장에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최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민생민주당국민회의(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용산참사유가족들과 2만여 시민이 함께 한 가운데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 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다. 이날 대회에서는 열사들을 추모하고 "이명박 악법 중단하고 서민경제 살려나라", "살인진압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서민을 살려내고 악법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MB전선에 힘을 모으다. 각당 대표들의 규탄발언에 이어 유가족대표 고 윤용현 씨의 부인의 감사의 인사말과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정광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진영옥 민주노동당 위원장 직무대행의 규탄발언이 이어지다. 1부행사에 이어 2부 추모문화제에서는 추모동영상 상영, 추모시 낭독, 추모 노래 등이 펼쳐지다. 대회의 마무리는 MB악법을 저지하겠다는 기원을 담은 풍등을 띄워 올리는 것으로 대회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은 명동성당으로 행진해 가려고 했으나 경찰은 철벽같은 방화로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경찰과 충돌을 빚다. 유가족을 앞세운 행렬 선두는 명동성당으로 도착, 오후 7시 30분께 집회를 정리하고 헤어지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시민이 연행되고, 1명이 경찰과의 충돌로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양심수후원회 김호현부회장도 경찰의 방패에 찍혀 크게 다치다 김호현 권오현 모성용 임미영 소수영

02 이북의 <통일신보>는 최근호(1월 31일)에서 6.15민족문학인협회가 지난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통일문학> 제3호 공동편집위원회를 갖고 3월에 발간될 예정이다라고 하다. 신문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동주 산문 연구>(오창은, 남측), <윤동주의 최후의 시들에 담겨진 애국의 열정과 고뇌, 지조와 신념의 세계를 더듬어>(김성희, 북측), <윤동주의 시세계>(김학렬, 해외), <윤동주 시에서의 '슬픔'의 바탕>(정은경, 남측), <삶과 함께 죽음을 민족을 위해 바친 애국시인>(박철, 북측), <윤동주의 역사인식과 '중시'의 시작>(장성규, 남측)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다"고 알렸다.

03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는 대법원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2002년부터 7년여를 끌어온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혐의가 지난해 7월, 갑자기 재개된 지 6개월여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 임기란 민가협전상임의장 박희진한청 부회장의 규탄발언과 한청 이승호회장의 기자회견문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문에서는 청년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동을, 이적단체라는 족쇄 하나로 짓밟은 이명박 정권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다.

04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경복 건국대학교 교수(지난 교육감선거의 후보)는 정부의 정치적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주 교수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것을 이유로 사학분쟁위원회해촉에 대하여 재판 결과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 2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다. 민주노동당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부패사학 복귀 음모이자 교육계 비판세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주 교수의 해촉 철회를 촉구하다.

05 이북의 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 <조선통신>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지대와 그에 따른 검증문제를 협의할 것이냐 아니면 핵군축회담으로 갈 것이냐'며 남측과 미국에 대해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대변인은 '이명박패당은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결코 우리의 핵무기 제거에 의한 <북핵폐기>가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어디까지나 남조선에서의 핵무기생산과 반입 그?와 리용, 만조선과 주변지역에서의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모든 핵위협에 대한 근원적인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선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화이다'라고 하다 또한 '미국은 핵위협을 청산하기 위한 <남핵폐기>가 없는 한 우리 핵무기제거를 위한 <북핵폐기>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고 하다. 이어 '이명박역적패당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조선반도 전역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북과 남이 합의한 비핵화공동선언과 9.19공동선언의 부인할 수 없는 원칙적요구'라고 하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역적패당은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조건에서 핵무기를 철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며 '체면도 자격도 없는 이명박 역적패당은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끼어들어 미국상선의 비위를 맞추는 추악한 주군노릇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다.

06 반북단체들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신관 1층로비에서 이북 돈 5천원권을 넣은 대북비방전단을 2월중순경 살포하겠다고 밝히다 이들은 '설혹 100개도 저촉된다해도 반드시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5천원권 1백장을 꺼내들고 이북돈 2~3만백만원 정도를 날려보내겠다'고 하다. 이러한 살포에는 미국의 반북단체인 디펜스포럼대표 수잔 솔피도 함께 한다고 하다.

07 인천광역시 시청사 현관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주최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흡수통일 전쟁대결 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극단적인 남북대치상황의 발단을 제공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핵, 개방 3000'의 즉각적인 폐기와 현인택 교수의 통일부 장관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 실천을 요구하다. 통일부가 한국문학평론가협회와 공동으로 기획, 출간한 책 가운데 북의 작가 황건의 개마고원이라는 소설에 대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출판을 승인하겠다는 '조건부 승인' 방침으로 전체 190쪽 분량 가운데 23쪽을 전부 삭제하고, 그 외 29쪽 분량에 대해 일부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다. 편집자는 통일부가 북의 저작권몰에 대해 일부 삭제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경우는 전부터 종종 있었으나 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칭이나 내용 이외에도 미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현정권의 북에 대한 인식이 반통일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라고 현

정권의 반통일정책을 비난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해 “남북간 무력충돌, 군사적 대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한다. 6.15언론본부는 성명서에서 “남북이 함께 힘을 모아 쌓아올린 지난 10년간의 평화, 협력관계의 공든 탑이 무너지고 군사적 위기 상황으로 악화된 주요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책임을 물으며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민간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시급히 행해야 한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정부의 이행을 촉구한다.”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앞에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다. 서명운동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뉘 서울을 비롯한 전국 60곳의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고 하다. 또 범대위는 전국 경찰서 165곳에서 김석기 내정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도 펼치기로 하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복측과 기사교류를 위해 통일부에 신청한 ‘사회문화협력사업’이 불허되다. 6.15언론본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위원장 최철남)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에서 6.15언론본부 인터넷 기관지인 <통일언론 www.tongilpress.com>과 북측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 www.uriminzokkiri.com> 사이의 기사교류에 합의하고 통일부에 승인을 요청에 대해서 통일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승인을 불허했다고 공문에 적시했다”고 밝히다.

서울 조선포털에서 열린 ‘2009년 한·미 협회 총회’ 조찬강연에서 윌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작계 5027을 대신한 새로운 공동작전계획 초안이 이미 완성됐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2012년까지 작전계획이 완비될 것이며 한·미 동맹 능력이 확고히 증강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합동으로 수립한 작전계획은 2012년 이후에도 적용된다며 이 작전계획에는 한국군의 전력 대부분으로, 이 전력은 한반도 지형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전행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해외 및 본토 미군의 증원전력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다. 또 오산에 연합군사령부도 설치하겠다고 밝히다.

04

서울 서초동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 곧 있을 검찰의 수사 발표를 앞두고, 검찰에 ‘희생자들의 사망경위와 사인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 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다. 이들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화재 원인을 비롯, 경찰과 이진입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인 이번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과 용역 수사에는 미온적인 반면 농성중이다가 죽거나 다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지금, 철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진상

조사단이 제기하는 사망경위와 사인의혹부터 조사하고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알리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6일로 확정된 검찰의 수사발표를 지켜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재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히다.

낙성대 만남의 집 후원회사사무실에서 석궁사건 김명호교수 석방대책위 집행위원회가 열리다. 이광렬구노회사무국장의 지난해의 경과보고에 이어 안전으로는 석궁사건진실규명국회청원과 향후석방대책위 활동을 논의 하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이광렬 구노회사무국장 권현옥 사법피해자대책위활동가 양심수후원회 임미영사무국장이 함께 하다.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 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이명박대통령사과 김석기 구속처벌 촉구유가족기자회견’을 열다. 이상림고인의 부인 등 유족들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처벌촉구발원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등 규탄발언 이성수 고인부인 권명숙님의 기자회견문낭독 등이 있었음. 회견을 마치고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청와대로 가려했으나 경찰이 가로막아 유족들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다. 결국 유족대표 3명이 청와대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행사를 마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이기택수석부의장은 탈북자 교육시설 ‘하나원’을 방문연설하면서 ‘꼭 어려움 이기고 성공 다해서 그리 멀지 않은 날 김00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이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는 시기를 함께 준비하자’며 ‘남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북지역 실정을 모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통일시대의 북한재건의 주춧돌이 되어 달라’고 강조하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초당적 범국민적 차원의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대통령에게 자문과 건의기능을 수행해야 할 사람이 이같은 망발을 하다.

미국무부는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확산활동에 개입해왔으며 이북기업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와 모공무역회사 시노키 등 기업을 제재조치하다.

셀리그.헤리슨 미국정책센터(CIP)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워싱턴 DC의 우드로.윌슨센터주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시절에 타결직전까지 갔던 미사일협정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를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핵협상과 병행미사일협상을 해야한다’고 하다. 또한 ‘북이 강경한 태로는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명박정부가 보여준 행동은 한미.일이 북의 정권교체와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우려를 북에 안겨줬다”고 설명하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핵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2000. 07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해야한다”고 지적하다.

05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초래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중단 및 현인택 통일부장관내정철폐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다. 정광훈 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 이규재법남본 의장의 기자회견문낭독 등이 있었음. 기자회견문에서는 비핵화방산친 구상을 폐기하고 이를 입안한 현인택 통일부장 관내정철회할 것과 대북빠라살포와 북인권법 제정시도 중단 하고 6.15 10.4선언이행을 촉구하다.

총로 보신각 앞마당에서 범민련남측본부 평통사 양심수후원 회 실천연대 한청 한총련 등 8개 단체 공동으로 '서해군사출 돌방지, 현인택 내정철회 6.15 10.4선언이행촉구시국농성돌 입 기자회견'을 열다. 이규재 법남본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 양 심수후원회회장의 결의발언 등이 있었음. 이들 단체는 6일부 터 통일부 앞에서 노상시국농성에 들어가며 이명박정부의 반 북대결정책중단 6.15 10.4선언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하다.

총로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41회 목요일집회를 열다.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 공동의장의 한청이적규정과 남 북관계과판 이명박정권규탄발언 임기란 전상임의장의 국가 보안법폐지발언 등이 있었음

리언.파테라 미 중앙정부국국장 지명자는 미의회상원정보위 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면자료를 통해 '북이 지난 2006년 핵무기(Nuclear Weapon)을 폭발시켰다'고 증언하다. 기존 의 미국정부의 입장은 핵장치(Nuclear derice)폭발실험'으 로 규정하고 있었음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여 한미연합공군사령부 창설방침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연합 공군사령부(CAC : Combined Airforce Command) 창설은 미 국에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 며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 고 비판하다. 미군의 정보 전력이 월등한 상황에서 미 7공군 사령관이 CAC 사령관을 맡게 되면 "현행 한미연합사 예하 공군 구성군 사령관이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오해란 평통사 자 주평화팀장유영재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 등의 발언에 이은 기자회견문에서는 공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군 당 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CAC 창설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 구하다

용산참사현장에서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 살인진압범대위 주최로 '3차범국민대회에 즈음한 범대위대표자 대국민호소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0이명박정부에 대해 대통령사와 김 석기.원세훈구속처벌 0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중단하고 수사본부 해체할 것 0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 0추모대회원천봉쇄 이명박정권을 규탄하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10차운영위원회 및 21차 1회총회준비 위원회 모임이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열리다. 일월 활동보고 와 회계보고 등에 이어 총준위원회에 박중기 지도위원을 호 선하고 총회 날짜와 인선 및 사업평가에 대한 논의를 하다. 박중기 김규철 김영옥선생님과 김지영 김호현 안병길 소수 영 모성용 김혜순 임미영 권오현 참석하다.

07

한남동 순천향병원에 장례식장에서 용산참사범대위는 용산 참사에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유가족들의 기 사회견을 열다. 이종희 대책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검찰발 표내용 보고와 유가족들의 사회 정황증거 설명에 이어 기자 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대로 열리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 은 검찰발표를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작된 것이라 규정하고 진실규명이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것으 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다.

미국의 거물급 북전문가인 보스워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조 너던.폴락 미국해군대학교수 모튼.아브라모위츠 전국무부차 관보 리언.시걸 동북아안보협력프로그램국장 등 7명이 지난 3일 방북4박5일 일정을 마치고 북경공항에 도착하다. 대표 단은 방북기간 이북의무성부장 김계관6자회담북측대표들 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다.

여의도 국회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6.15청학본 부 서울본부 언론본부 교육본부 등 공동으로 남북관계 파탄 낸 '비핵.개방 3000' 입안자 현인택 통일부장관내정철회촉 구기자회견'을 열다. 김호 6.15청학본부 집행위원장 사회로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 박덕신 6.15서울 본부상임대표 이준희 6.15언론본부공동대표 등 규탄발언과 박희진 청학본부상임부대표의 기자회견문낭독이 있었음

서초동검찰청 앞에서 용산철거민유가족과 이명박정권-살 인진압범대위공동으로 용산참사검찰조사결과 발표규탄기 사회견을 열고 '진실왜곡편파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하다.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 이상립고인의 따님 이현선님의 가족규탄발언 이덕우 진보연대공동대표 임 기란 민가협전상임의장의 규탄발언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청계광장 원천봉쇄로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이명박 정 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주최로 1,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한 가운데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 인진압 희생자 제3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열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이 수십 대의 버스로 철저히 봉쇄하여 애초의 장소 인 청계광장을 뒤로 하고 참가자들은 종로 일대의 거리 진출 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날 100개 중대 1만 여명의 병력을 이 일대에 배치시켜 청계광장은 물론 그 일대, 무교동, 소공동 등 골목길을 봉쇄하는 초법적 행태를 보인다. 이리저리 흘러 저 모인 시민들은 "학살정권 물러가라", "김석기를 구속하 라", "독재정권 명박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 선전전 을 펼치다. 경찰은 색소물총을 쏘며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냈 다. 행진대열은 종로5가 방면과 을지로 방면으로 대오를 나 뉘어 행진을 이어가다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이 주축 이 된 300여 명의 시민들은 등대문 일대까지 도로까지 진출 했고, 을지로로 향한 시민들도 오후 9시경 명동으로 집결, 정 리 집회를 마치다. 권오현 김호현 모성용 임미영

08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의 19일 방한을 앞두고 도널드.그 래그 전주한미대사는 "클린턴장관이 방한하면 남한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북에 대해 적대적인 잡음(hostile noises)을

나는 일부남한사람들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다.

9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남측에서 진행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이라며 반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통신에서는 연합뉴스의 한미군사연습을 인용하면서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전면 파탄시키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의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은 이명박 호전세력이 미제와의 북침합동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면 올릴수록 저들의 파멸의 시각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하다. 한편 육군 제 26기계화사단은 지난 5월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미군 1여단과 함께 전차 장갑차 도하훈련을 실시했고 육군 5보병사단은 6일 부산항에서 주한미해군수송사령부 부산 경찰청 등 10여개 유관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연합테러 대비 훈련을 가진바 있음

99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용산참사 특별검사제’를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은 발언을 통해 경.검찰의 편파수사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수사 등 책임자처벌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다.

9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3~7일 평양을 방문했던 모든 아브라모비츠 전 국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전 문기들에게 북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북.미 양자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계관 부상은 또 방북단에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직접 양자 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6자회담에 대해서는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방북단의 한 일원이 이날 간담회에서 밝혔다.

9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주최로 용산살인진압에 대한 검찰의 편향된 수사발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다. 김태연 상황실장은 “2월 9일은 검찰이 사망한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 이명박 정권 스스로 운명을 끊은 날”이라고 강도높게 규탄하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추모대회 장소를 파이낸스빌딩 앞으로 옮기자 경찰이 병력을 투입해 이를 저지하려 하자 유가족들은 손을 잡고 원을 이뤄 경찰의 진입을 몸으로 막아 나서다. 유가족들이 외벽을 쌓고 그 뒤편으로 모인 150여 명의 시민들은 “살려내라 살려내라 철거민을 살려내라”, “구속자를 석방하고 김석기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유가족 등 100여 명은 추모문화제가 끝난 뒤 두 편으로 나뉘어 서대문구 경찰청 앞까지 인도로 행진을 펼치며 경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다.

10 주한미군 소속 아파치 헬기 대체전력으로 이번 달에 한반도에 배치되는 F-16 전투기가 12대에서 14대로 늘어났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 Stars&Stripes>가 보도했다. <성조지>는 미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달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개되는 전투비행대대는 14대와 약 400여명의 공군병력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다. 이 비행대대는 일본 미사와 공군 기지에 F-16 대대가 이번에 한국에 전개되면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 1개 대대, F-16 3개 대대, A-10기 27대를 운용하게 된다.

9 월드사프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외신기자클럽강의에서 이북의 <불안정>사태에 대한한미양국의 대비책과 관련 ‘전면전에 대비한 계획도 있고 북한이 불안정한 사태에 대비한 계획도 있다고 하다. 이어 여기에는 자연재해 내전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상실을 전반적인 상황이 포함되고 있다며 김 태 연합참의장과 우리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다 또 한 북의 미사일위협과 관련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 인근 장사정포단거리미사일 포병 등에 대한 정밀정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는 레이더체계를 갖추고 있어 북의 발사시점과 위치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며 (유사시)아군의 포병과 공군력으로 이를 타격할 것’이라고 하다. 또한 주한미군 추가 감축과 관련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2년 이후에도 현재 수준인 28,500명을 유지할 것임을 확신하다”며 주한미군의 한국 근무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하다.

9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빌딩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대북빠라 살포 미국무부 배후지원규탄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의 반북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다. 한 상렬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 한대련의장의 규탄발언 이규 재범남본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대북비방전단살포 단체들에 미국이 3백만 달러 (약40억)을 지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규탄하다. 진보연대는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미 국무부의 답변을 14일까지 요청했다. 미 국무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15일 전국 동시 다발로 대사관, 영사관, 미군기지 등 전국의 미국 주요기관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빠라를 살포할 것이라고 밝힌다.

9 부산 양정동 미영사관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이하 6.15부산본부)는 ‘미국무부 대북빠라 지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10만장 반MB 빠라 살포’ 계획을 밝힌다. 참가자들은 부산여성단체연합 유영란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남북간의 무력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이 위협천만한 대북빠라 살포에 대한 미국정부의 자금지원을 규탄하며 대북빠라 살포 자금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다. 특히 이들은 “대북빠라 살포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국민들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며 “우리는 1차로 서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국의 네티즌들과 함께 2월 14일까지 국민들에게 10만장의 빠라를 직접 받는 운동을 펼쳐 한국 내 미대사관, 미영사관, 미군기지 등의 시설에 살포할 것이다”고 밝힌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9부(부장판사 지영철)는 울산국민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장모씨 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당시 군인과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 51억 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다. 또 이번 판결이 국민보도연

맹사건과 관련한 첫 배상 판결인 만큼 1950년 당시 전국적으로 회생당한 이들에 대한 추가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7,8월경 경상남도 울산군에 거주하는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울산경찰서와 예하 지서의 소집 통보를 받고 출두한 이후, 울산경찰서 유치장과 연무장, 학생농협창고 등에 집단 구금되었다가 경찰과 CIC(미 육군 소속)는 구금된 연맹원들을 수십 명씩 철사 줄로 묶은 뒤, 야간에 트럭에 싣고 울산군 용촌면 대북리 오복재와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으로 끌고 가 집단 총살했다. 유족들은 이 사건이 정부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며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광화문 우체국 6층 북한자료실에서 장기수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북영화보기가 있었음 통일광장의 김선분 박성숙 변승현 송세현선생님과 정해열 박창희 김래곤 이윤 한찬욱 회원이 함께 하다.

도림동 통일부 앞에서 '서해 군사충돌 방지, 현인택 내정철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촉구 시국농성' 농성장에 합류하다. 권오현 이수영 임미영

11 -----

용산구 효창공원 백범기념관 컨벤션 센터에서 겨레하나나 전국 각 지역 본부 150여 명의 임원과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5차 정기총회가 열리다. 권해효 홍보위원의 사회로 겨레하나 홍보위원인 배우 권해효 안석환씨가 공로패를 받았으며 황인성 통일맞이 집행위원장이 이사로, 권상능 조선화랑 대표가 공동대표로 김진원 부산겨레하나 상임대표,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겨레하나 공동대표를 맡게 되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최병모 이사장, 김지영 북녘어린이콩우유사업본부장, 서울본부 권낙기 공동대표, 전북본부 이강실 상임대표, 부산본부 이봉이 공동대표 등 전국 지역본부 회원들과 정광훈, 오중렬,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영 민가협 상임대표, 정동의 사월혁명회 회장 등도 함께 하다.

명동성당에서 용산참사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범대위대표단 농성이 계획되었지만 경찰이 성당들머리를 가로막고 있어 일부대표는 성당계단에 들어간 상태에서 일부는 경찰이 가로막고 있는 앞자리에 나누어서 '비상시국농성돌입발표기자회견'을 가지다. 범대위상황실장 사회로 노수희 범민련서울연합의장 정광훈 진보연대대표 배은심 유가족협회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의 결의발언과 오세철 사노련운영위원장의 기자회견문낭독이 있었음. 대표단은 경찰방벽을 사이에 두고 이날부터 노상농성에 들어가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니카소네 히로후미 일의상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북핵문제와 미사일 납치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의 포괄적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며 이날 논의를 기초로 한일양국이 곧 클린턴 미국무장관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하다. 유장관은 특

히 일본의 납치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히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이날 기존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할 새로운 작전계획을 2009년 7월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8월 실시되는 <울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에 이 작전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한 미양국은 정보분야와 공군작전에 대해서도 현연합체제에 대해서도 현연합체제와 동일하게 편성된다며 연합공동사령부를 창설하고 미칠공군사령관이 CAC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고 하다. 또한 미국은 주한 미 파군사령부를 모체로 한국에 작전지휘소(OCP)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은 태평양전국에 두 개의 OCP를 만들려 구상 태평양사령부와 한국에 미8군의 모체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다. 영구강점 책동이다.

12 -----

도림동 통일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비방전단살포 문제를 해결과 6.15, 10.4공동선언 실천을 촉구하다. 한상렬 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과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원기 5기 21세기대학생연합 의장의 발언에 이어 이규재 조국통일법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범민련 등 노상농성장에 합류하다. 임미영 이수영 권오현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42회 목요일집회가 열리다. 여는 말 서경순 전상임의장 권오현 공동의장 남북관계 뼈라살포 북인권제정시도 규탄발언 임기탄 전상임의장 테러방지법 제정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미중앙정보국(CIA) 등 미국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데스블레이 미국가정보국장은 상원정보위원회의 국가위협평가 청문회에 낸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이 아마도 핵무기를 전투용-war fighting이라기보다는 억지deterrence나 국제적위상international prestige 그리고 강압적외교coercive diplomacy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며 북한이 오로지 특정한 상황에서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EA)이 보도하다.

13 -----

이북의 <로동신문>은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12일 임명된 것과 관련해 이를 '반공화국(반북) 대결기도의 뚜렷한 발포'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대결자세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남북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인 '비핵 개방 3000'을 낸 "현인택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세운 사실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며 "남조선 각계는 현인택의 '통일부' 장관임명이 가뜩이나 악화된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단낼 것이라고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문은 "이명박 정부는 북남관계가 더 이상 견잡을 수 없는 위기에 놓이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전쟁경계로 치닫고 있는 엄중한 현실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통일부 앞에서 지난 5일부터 실천해왔던 '서해군사충돌방

지 현인택내정철회 6.15 10.4선언이행촉구 시국농성이 이날 해단식'을 갖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김규철 범민련고문 김자명 실천연대활동가 등 결의발언과 이규재 범남본의장의 농성해단정리발언이 있었음

●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아시아순방을 앞두고 뉴욕아시아사이어티 연설에서 만약 북이 진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바마정부는 양자관계를 정상화하고 코리아반도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며 북에너지와 주민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구가 2,405만 1,21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북의 인구는 군 시설 거주자 70만 2,373명을 포함해 이 같이 집계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예비결과를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집계결과를 유엔인구활동기금이 지난해 11월 '2008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서 밝힌 2,390만 명보다 15만 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유엔인구활동기금이 북한의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1993년 이후 15년 만이다. 지역별로는 평안남도가 405만 1,70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양시가 325만 5,388명, 함경남도 306만 6,141명, 평안북도 272만 8,617명으로 뒤를 이었다. 평안남도와 평양시의 인구는 총 인구의 41.71%를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1,172만 2,403명, 여성 1,232만 8,815명으로 여성이 60만명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4 서울역 광장에서 이명박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제 4차 용산참사 범국민 추모대회'를 열다. 용산참사현장이 경찰에 의해 봉쇄되는 바람에 1시간 늦게 서울역으로 옮겨온 1만여 노동자 농민 시민은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결의대회에 이어 추모대회에서는 추모의례에 이어 윤용현 고인의 아들 윤현규군의 유족결의 발언과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 사회시민단체들의 규탄발언에 이어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이 낭독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참사의 책임이 경찰의 불법 과잉 진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다. 범대위는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여가 되는 오는 21일 제5차 범국민 추모대회와 28일, 10만의 시민들이 참가하는 범국민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한 뒤 대회를 마친 후 거리 행진에 나섰다 경찰의 철통같은 봉쇄 속에서 도심 이곳저곳에서 산발적 시위가 이루어지다. 모성용 이승미 변의숙 송창학 주경임 소수영 임미영 권오현

●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위원회'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년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이 열리다. 참가자들은 이날 선포식을 통해 올해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추

진위원회 1만명, 길잡이 10만명 조직'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과 부문을 망라한 '범국민적인 평화협정 실현 추진 기구' 결성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배종렬 평동사 상임대표의 인사말 유영재 평동사 정책실장 상황실명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전대표, 현인택 민주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연대의 말에 이는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15 서울 영등포구 대영빌딩 앞에서 반북단체들의 대북비방전단 살포를 하루 앞두고 한국진보연대소속회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정부에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며 'MB방패 빼라'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다. 애초에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장소가 민노총 마당에서 진행되다. 대형 노란색 에드벌룬 2개에 달린 흰색 상자에는 1만장 가량의 빼라들이 담겨 있어 공중으로 20여 미터 떠오른지 빼라가 뿌러지기 시작하고 이어 참가자들은 손에 들고 있는 색색의 풍선을 공중으로 띄어보내다. 진보연대는 이날 서울 주요 지역(명동, 종로, 대학로 등)에서 퍼포먼스에 사용된 '빼라'를 포함해 5만장의 '빼라'를 날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군당국은 북의 미사일을 탐지 격하는 임무를 전담할 작전통제소(AMD-Cell)를 2012년까지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날 밝혀지다. 이 시설이 갖춰지면 군은 독자적으로 북의 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하다. 소식통은 2006년부터 <탄도유도탄미사일을 작전통제소(AMD-Cell) 구축계획을 추진해왔다면서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2년까지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다. 이같은 작전통제소는 평시 이북이 미사일시설을 24시간 정밀감시하고 미사일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유사시 삼국사령부에 설치된 대외력전수행본부와 연동해 발사된 미사일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시설이 탐지,요격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북의 미사일은 스킵트 BC사정거리 3천에서 5천킬로미터와 노동미사일 1500킬로미터 등이다.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2호도 탐지해 이지스구축함 등에 요격지시를 하달하게 된다. 군은 이와 함께 작전통제소(AMD-Cell)에서 운용할 조기경보레이더를 해외에서 구입할 계획이다. 탐지거리는 400~1500킬로미터에 이르고 미사일 비행방향과 탄착지점 등을 계산해 작전통제소와 패트리엇 부대에 동시에 요격전을 단독으로 운용중인 주한미군의 전구 유도탄작전반(TMO-Cell)과도 연동할 수 있다고 하다. 2012년까지 4대의 공중조기정찰기와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AN/SPY-1DV레이더 등도 북미사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립 분석하는데 활용된다고 하다

16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주최로 '용산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촉구청와대 보도지침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진실을 가리기위한 군포살인사건 적극활용 지침을 내린 청와대를 규탄하다. 참가자들은 청와대의 언론 조작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제조사를 촉구하다.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유인 일 창조한국당의원 조용수 민연련대의협력부장 등은 발언을 통해 청와대에 여론 조작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서울 대학로 대명거리에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등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범국민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마지막 날인 22일까지를 집중투표기간으로 지정, 선포한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다. 선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집권 1년을 맞이한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특혜정책들 무분별한 개발정책들을 국민에게 알려다. 지난 1월 8일, 시작을 알린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범국민 투표'는 실천연대, 6.15청년학생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온라인(cafe.daum.net/mbend)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선관위가 발표한 중간집계 결과(16일 정오 기준)에 의하면, 온라인에서는 총 11만 4천여 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불신임 의견이 11만 1천여 명(97.38%)으로 신임 의견을 보인 3천여 명(2.62%)을 훨씬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의 경우 총 9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계를 마친 5,309표에 한 해 불신임이 5천여 표(92.84%), 신임이 3백여 표(6.17%)로 나타났다.

이북은 최근 미국 등에서 나오고 있는 북의 미사일 발사설과 관련 발사체는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임을 분명히 하다. 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빌어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날아올라갈지는 두고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우주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이며 현실발전의 요구'라고 밝히다.

남도빨치산으로 활동하다 옥고를 치르고 2차송환희망을 기다리던 서순정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후원회에서는 보라매병원 영안실에서 통일광장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추도식을 가지고 가신 선생님을 명복을 빌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식지 208호보심)

17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 KT 앞에서 '평통사 범남본 양심수후원회 등 9개단체 주최로 시민사회단체서성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제113차 반미연대집회'가 열리다. 황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재정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숙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원진욱범남본사무차장 유영재 평통사미군문제 담당 등 결의발언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의 힐러리.클린턴 미국무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낭독하다. 항의서한에서는 클린턴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하여 해결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며 환영한다며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하다.

용산국방부 앞에서 평통사와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함께 하여 탄도미사일 적전통계소(AMD-Cell) 구축과 조기경보레이더 도입 중단 촉구기자회견을 가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이른바 한국형(MD)체계를 미국(MD)체계에 전면 편입시키되 될 적전통계소(AMD-Cell)구축과 조기경보레이더도입 즉각중단 (2)대북세계공격을 노리는 모험주의적 MD구축을 중단할 것 (3)시대흐름에 역행하는 MD구

축중단을 촉구하다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009년 정기 회의(총회)를 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의 새 상임대표로 김상근 전 민주평통 수석부장을 선출하고 백낙청 전 상임대표는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박용길 통일맞이 상임대표와 함께 명예대표로 선출하다. 새 공동대표 선출과 함께 '6.15 10주년 기념 특별사업' 등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백낙청 명예대표는 상임대표직에서 물러나며 김상근 신임 상임대표에게 한반도기를 전달했고, 김 상임대표는 백 명예대표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다. 주요사업으로는 6.15공동선언 발표 9주년과 10.4선언 발표 2주년을 각각 기념하는 민족공동행사와 3.1운동 90돌과故문익환 목사의 방북(4.2공동성명 발표)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앞선 이달 초 6.15남측위는 6.15북측위와의 실무접촉에서 3.1절 90돌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치를 것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남북당국간 경색상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해 행사를 각각 치르되, 공동문건을 채택키로 하다. 이밖에 6.15남측위와 주관하고 산하의 농민본부가 추진해 온 '통일쌀보내기' 운동도 올해도 추진된다. 또 권오현 공동대표(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이 제의한 △대북 전단살포 △북한인권법안 제정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현안에 대한 6.15남측위 차원의 대응사업도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키로 하고 박수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다. 이날 총회에서선 공동집행위원장 중 한국진보연대 한총목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을 대신해 정대연 정책위원장이, 6.15남측위 전북본부 방용승 집행위원장을 대신해 경남본부 황철하 집행위원장으로 각각 교체되다.

18

이북의 <로동신문>에 따르면 이북의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이날 대변인담화를 통해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여 나선 무고한 인민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이명박 패당의 인간살육만행, 인권탄압살행위를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담화는 이번 용산참사가 남측 정부의 "파쇼독재통치와 반인민적 야정의 일단에 불과하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쇠고기수입개방 등 일련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거친 단어를 사용하며 맹렬히 비난했다. 담화는 "참으로 집권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남조선은 민주와 인권의 무덤으로, 민생의 불모지로 전락시킨 역적패당이 감히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파렴치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 회의실에서 미군범죄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남측본부 이차 운영위원회를 열다. 2008 하반기 진상조사단 활동보고와 2008 하반기 결산보고 등이 이어 2009년 사업계획을 토의 끝에 채택하다.

한국진보연대 회의실에서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남측본부 2차운영위원회를 열다. 2006 하반기 진상조사단 활동보고와 2008하반기 결산보고에 이어 2009년 사업계획안을 토의끝에 채택하다.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무력대

결을 부추기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최영옥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의장의 여는말에 이어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의 발언과 한국대한생연합 이원기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한미연합사(사령관 윌터 샤프)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09 키리졸브/독수리연습(KR/FE)'이 오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은 총 2만 6천여명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1만 2천명, 해외 증원병력 1만 4천여명이다. 증원병력 중 1만여명은 실제 육지로 증원되지 않고 해상 위에서 대기하는 항모전단 전력이다. 한국군도 2만여명 이상이 참가하고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이 부산으로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는 이 연습에 대해 "가용한 모든 인원과 장비가 포함된 연습이며, 특히 독수리 연습은 전구급 사령부의 연합/합동 야외기동 연습으로 각 부대별 다양한 훈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해 2007년까지 진행됐던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을 대체하는 새로운 명칭의 연습으로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증원군을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면에 대해 훈련하는 연합/합동 지휘소 연습이라고 하다.

여의도 국회 부근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한나라당에 대해 2월 임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북한 인권 법안의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진보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 사회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등은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임미영 권오현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한국군과 미군이 "무력증강과 북침전쟁연습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렀으며 물리적 충돌만이 시간 문제로 남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통신은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19일 미제침략군호전광들은 해외까지 'F/A-18' 추격습격기 20여대와 'HC-130' 구호기, 'KC-135' 공중급유기를, 이보다 앞서 13일에는 'F/A-18' 추격습격기 16대와 'E-3' 지휘기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공군기지들에 기동전개시켰다"고 전했다. 또, "이달 말 일본의 미사와공군기지에서부터 'F-16' 전투폭격기 1개 대대를 남조선에 기동전개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에 대해서도 통신은 지난 17일 육군 26사단 등이 경기도 일대에서 기계화부대 기동훈련을 진행한 것을 두고 "땅크와 장갑차, 포무력들과 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지상공격작전연습에 미쳐날뛰었다"고 비난했다.

종로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43회 목요일집회를 열다. 이영상임의장의 여는 말 천주교인권위 활동가의 국가인권위원회 구속 시도 규탄발언 권오현공동의장의 북인권법제정시도 규탄 발언 등이 있었음

지난 해 미친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구속되어 있는 권승우님을 서울구치소로 면회다녀왔습니다. 권승우님은 바깥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의 걱정을 전하고 안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으며 투쟁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고 전하다. 임미영 노사과연 활동가 최상철 함께 하다.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남측 본부 공동 주최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방문에 따른 '한반도 평화정착'과 '변화된 외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한미 양국군의 '연합공군사령부' 설립으로 인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작전통제권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대북 선제공격 노린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할 것과 미국이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침략적이고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폐기를 촉구하다.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평통사 민주노총 다함께 한국진보연대 등 공동으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주한미군사령부 방문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o공군을 포함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고 유엔사 해체할 것 o대화와 전쟁연습을 양립할 수 없다 대북선제공격노린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할 것 o한반도에서 MD체제구축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다.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민주노총 평통사 등 공동으로 힐러리 미국무장관방문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o대북압박포기 북미관계정상화 o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북미직접대화에 적극 나설 것 o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역행하는 침략적이고 종속적인 한미동맹강화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다.

충무로 참미디어에서 후원회소식208호 교정 작업을 하다. 소수영, 임미영, 권오현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 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산발적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청계광장 및 시청 일대 등에 병력을 배치,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추모대회를 원천봉쇄하여 산발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지다. 또 영정사진을 안은 유족들이 프라자호텔 앞에서 청와대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은 유족들이 가지고 있던 영정 사진을 강제로 빼앗고 발로 짓밟아 영정 사진 액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또 이에 항의하는故이성수씨의 아들 이상훈(21)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치는 만행을 부리다. 경찰은 행진을 시작하자 1천여 병력은 유족들과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내고 유족들의 주위를 에워싸 고립시키다. 시청 광장 앞 인도에서 연좌 시위를 펼치며 시청 광장 스케이트장과 프라

자 호텔 앞에서 “살인정권 명박 퇴진”, “살인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나간다. 유족들과 시민들은 이후 한국은행, 명동으로 자리를 옮기며 추모대회를 이어갔고, 오후 7시 30분께 명동성당 방면 ABC 마트 앞에서 정리 집회를 마치고 자진 해산한다.

유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끼 걱정 사죄수’ 언급을 거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는 악담”이라고 격하게 반발하며 “우리는 가장 무자비하고 단호한 결산으로 역적 패당과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한다. 대변인 담화에서도 “앞으로 시간은 리명박 패당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한다. 이 담화는 이 대통령을 “동족대결 광증”, “반통일 분자” 등으로 맹비난하면서 “북남 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추호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하고 “동족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모독하고 전면부정하는 마당에 무슨 북남화합이 있고 공생, 공영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유 종로 음식점에서 음식통 감시통 총모임을 갖고 새오피스 일꾼으로 김길자회원을 뽑는다. 상반기 팀장으로는 김장욱회원이 하반기 팀장으로는 김혜순회원을 뽑는다. 음식통감시통은 1990년 태백산맥 완결기념 태백산맥제에 참가했던 회원들이 문학과 기행모임으로 발족하여 문학 역사 환경 통일 기행 등을 하고 있음

22 -----

유 6.15한미음동일산악회가 북한산 쪽두리 봉 등정을 하다. 모두 19명이 함께 하여 연신내 역을 떠나 불광사-매포소-바위산길-계곡샘터-향로봉아래에서 쪽두리봉으로 가고 등정을 하다. 빙판길이었지만 모두 무사히 쪽두리봉에 이르러 기념 사진을 찍다. 넓은 터를 골라 점심식사 소개시간 정세보고 시간을 보내고 불광역 쪽으로 내려와 뒷풀이를 하다. 김영승 박희성 수원이사철민 전교조 이수일선생 범민련 이경원 원진욱 이정태 통일뉴스 오창근 김양희 관악구 김동일 우리 학교 팬카페 김효수 양심수후원회 김재선 신현이 강덕환 나순석 김래곤 김익 송지영 권오현 등(후원회소식 기사보심)

23 -----

유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법 제정 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사건 진상조사 보고회에서 “용산참사의 구속된 철거민들이 기소된 날인 2009년 2월 8일 경부터 벌써 2주일이나 경과하였는데, 검찰은 수사기록 미정리나 일부 철거민들에 대한 기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방침에 의혹을 제기하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수사가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고, 사건의 진상규명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찰의 ‘면죄부’ 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하다.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공권력 투입의 합목적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다.

유 영등포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삼성일반노조 추위로 삼성

노동자 핸드폰복합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고소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04년 7월 13일 1차 서울중앙지검에 삼성노동자핸드 폰 불법복제하여 위치를 추적해온 범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한 이후 04.7/22 2차, 08년 3/24 3차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오늘 기소중지된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소속을 적시하여 09년 2/23에 4번째 고소한다고 밝힌다.

유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소식 208호 발송작업이 있었음. 문상봉 박희성 김영식 소수영 임미영 함께 하다. 또 회원들에게 소식지 971부를, 양심수에게 영치금, 민족21과 소식지 발송을 하였음

24 -----

유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 시험통신위성발사준비를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담화에서는 ‘광명성2호’를 운반 로켓 <은하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또한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은 경제강국을 향한 또하나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며 “국가우주개발전망에 따라 우리는 1단계로 가까운 몇 해안에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 자원탐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실용위성들을 쏘아올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밝힌다.

유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민생 민주국민회의(준) 등 시민사회단체 500여 명은 ‘용산 참사’ 특검제 도입과 ‘MB입법’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대회를 열다. 임재경 원로언론인의 여는 말에 이어 정세균 민주당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의원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등의 발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정광훈 진보연대대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결의 발언에 이어 용산 철거민 이성수 씨의 부인 권명숙 씨도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다. 참가자들은 △언론법 개정에 대한 전 국민적 여론 수렴 △금산분리 완화, 은행법 및 출자총액제도 폐지 추진 철회 △최저임금제 개정과 기간제 연장 철회 △6.15, 10.4선언 이행 등 10대 요구안을 촉구하다.

유 명동 향린교회에서 각계 시민사회진영 인사들은 ‘용산참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각계 시국회의’를 열고 용산참사에 공동 대응을 논의, 이후 전개되는 활동계획들을 확정, 발표하다. 용산참사의 전면재조사가 늦어지고 또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원세훈 전 행안부장관(국정위원장), 백동산 용산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의 고발을 목표로 ‘범국민고발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하고 5대요구안을 발표하다. 참가자들은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28일의 범국민대회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다. 각계 인사들은 △이명박 대통령 직접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검제 도입 △책임자 구속처벌 및 재발방지책 도입 △강제 철거 중단 및 뉴타운-재개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사망자, 부상자, 철거민 대책 마련, 구속자 전

원 석방 등을 촉구하다. 정광훈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배종렬 평통사 공동대표, 문정현 신부,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임성규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 하다.

25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농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취임 1년을 맞은 이명박 정권의 농업 정책을 규탄하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신자유주의 농업포기 정책으로 일관해온 정부로 인해 이제 한국농업은 죽음의 문턱까지 와있다며 농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350만 농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반농업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을 위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량주권 쟁취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다. 참가자들은 "물러가라 MB악법", "사죄하라 용산참사", "농업포기 농업파탄 이명박 정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량 대회를 이어가다.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생민주국민회(준)주관으로 '이명박정권악행 범시민사회단체 공동평가 기자회견'을 가지다. 각계 대표들이 함께 한 가운데 교육, 여성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 노동 언론 경제 남북관계 등 각 부문별 평가를 하다. 평가에서는 민생경제파탄 인권민주주의 말살 남북관계 파탄 노동자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에 대한 억압착취와 지난 20년 동안 이룩한 민주주의와 10년동안 발전시켜온 남북사이 화해협력성과를 송두리째 파탄 낸 것으로 보고되다.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방위위원장은 방송관련법 등 22건을 일괄상정한다며 기습적으로 문방위에 상정시키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에 정한 의사일정변경절차를 밟지 않았고 의안이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발표했으며 상정된 의안에 미디어법이라는 법안도 없으며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명박정권의 전향적 의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전국 대학 28개 총학생회, 28개 단과대학 학생회의 공동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비판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다. 대학생들은 이명박 대통령'탈'을 쓰고 졸업한 한 대학생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줄임말)에게 '실업증서'를 주는 퍼포먼스를 해보이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비판과 새로운 교육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교육정책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 불신을 심어주고 사교육비에 고통 받는 정책들로 일관하였다"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1년은 한마디로 '탈선한 기관차의 폭주'라고 밝히다. 정 진후전교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교조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다.

국회 인근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언론노조와 용산법대위, 민

주노동당,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언론악법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고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장의 기습상정을 맹비난하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 김보협 한겨레지부장, 정범구 민주당의원, 고이성수씨의 부인 권명숙씨 등은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이 기습상정은 '언론악법 날치기 미수'라고 주장하다.

26

종로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44회를 열고 이명박정권 일년 평가규탄내용으로 진행하다 권오현 공동의장은 여는말에서 민생경제 민주주의 인권 남북관계파탄내용을 규탄하고 임기란 서경순 전상임의장이 이명박정부 일년의 국가보안법 강화 인권침해 내용을 규탄하다

27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민변, 참여연대,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은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비준동의에 반대한다고 밝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지 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양해'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전용 결과의 핵심 문제라 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기지이전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협의의 중이어서 아직 밝힐 수 없다는 판에 박힌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하다.

영등포 한나라당 전여옥의원 사무실 앞에서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국민연대와 동의대사건관련자 남민전사건관련자 유가협회원 해고노동자 등이 함께 하여 '민주화운동 역사외곡 폄하 시도하는 한나라당과 전여옥의원 규탄기자회견'을 열다. 이명주 계승연대집행위원장 사회로 강민조 계승연대상임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 정동익 동아투위대표 윤창호동의대사건관련자 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악안을 강도높게 규탄하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여옥의원은 민주화운동을 폄하.모독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다

국회 본청 앞에서 계승연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은 당산동 전여옥 의원 사무실 앞에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 법률안 발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회 본청으로 이동해 민주노동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청 출입이 막혀 기다리는 도중 전여옥 의원과 마주치게 되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소한 실랑이 끝에 이정이 부산민가협공동대표를 연행하다. 경찰은 이같은 우발적 실랑이가 있는 지 두 시간도 지나서 뒤늦게 영등포경찰서장까지 나타나 이정이대표를 긴급체포하고 수사관 50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야단법석을 떨다. 전여옥 의원이 이 법률 개정안에서 '부산 동의대 사건' 등에 대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의 재심 가능성을 열어두자, 시민단체들로부터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28

청계광장에서 열리던 용산참사 6차범국민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프레스센터로 옮겨 언론노조의 총파업결의대회와 함께 진행된다. 700여명의 조합원과 시민이 함께 한 가운데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보수언론들이 전여욱의원 폭행기사내용을 말하며 '이정이대표가 눈알을 후벼파지도 폭행도 않았으며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비상심의법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한 항의였을 뿐'이라며 '지금 정부가 통과시키려는 악법들이야말로 KBS MBC SBS EBS에게 그러한 왜곡보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겠냐'고 미디어악법저지결의를 다지다. 언론노조 각지부장들로 무대에 나와 이번 언론노조 파업에 함께 하며 mb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의 총파업 지지연대사가 있었음. 대회를 마치고 태평로 한화 빌딩 쪽을 이동하여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달리는 1만여 노동자들과 합류하다. 그러나 경찰은 폭력으로 평화시위마저 강제해산에 나서다. 이에 맞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10여명이 강제연행되다. 시위대는 남대문을 지나 명동으로 옮겨 악법저지 명박퇴진 구호를 외치다. 한국은행 앞에서는 이명박모형 화형식도 진행한다. 4천여 시위대는 경찰과 부딪히며 명동성당에 모여 악식집회를 하고 다시 용산역으로 지하철로 종로 보신각 등으로 옮기면서 시위를 이어나가다.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또 하나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북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해 한미일 등이 유엔결의안위반이란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웹사이트는 '우주는 그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라 전 인류의 것이며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라며 인공위성발사임을 강조하다. 이어 '우리가 인공위성발사준비를 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지만 아니라 손사래를 치고 있는 남조선 괴뢰들이 심보야말로 참으로 고약하기 그지없다'면서 '우리공화국은 누가 관심을 가지지 않건 모든 것을 우리식대로 해나가고 있으며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하다. 또한 우리군대는 <국지전>이전 <전면전>이전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만반의 전투동원태세에 있다고 자신하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정이 부산민가협전 의장을 면회하다. 부당하게 강제연행당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해오신 이정이전의장은 민주주의를 되돌리려는 행패에 분노한 것은 당연했다. 부산 가족들과 민가협유가협 회원들이 함께 면회하며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하다. 이정이 대표님을 항의는 했지만 폭행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이 지역구의원의 시늬가 되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분개하다.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민주노총주최로 '살인정권 규탄! MB악법 저지! 경제파탄 고동전개! 이명박 정권 심판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만여명은 이번 노동자대회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전면적인 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을 선언하다. 임성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 낭독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연대사에 이어 공공운수(위원장 임성규) 건설산업(위원장 남궁현) 연맹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맞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

한 결의문을 채택하다.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6시에 열리는 예정인 '이명박 1년 심판의 촛불을 들자' 10만 범국민대회에 동참하다.

북측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책임자는 남측 군부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만약 미군이 북남관리구역에서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군대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통지문은 구체적 사례로 "지난 1월 5일과 21일 미군이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분계선 30m 계선까지 들어와 우리측 초소를 향해 사진을 찍고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차량들을 감시한 것을 비롯해 올해에 들어와 2월 20일까지의 기간에만도 무려 66차에 걸쳐 62명의 인원과 58대의 차량이 북남관리구역 군사분계선 100m 거리 안에 들어와 제멋대로 돌아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남측에 대해서도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측은 우리 군대가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여주의 한노총 수련회장에서 전국에서 참가한 중앙위원 및 참관단 사회단체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가 열리다. 이경원 사무처장 사회로 애국의례와 범민련진군가에 이어 이규재의장의 개회 선언 서기와 사찰선출 총회준비 활동보고 안건 채택과 회순통과가 이어지다. 안건토론에서는 지난 10기 2차 사업보고와 평가, 이성근감사의 감사보고 및 운영규약 개정 에서는 남측위고문추대조항을 자문위원으로 개정하고 집행위원장 직제를 없애고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승인하다. 이어, 11기 임원이 선출 에서는 인선소위에서 제출한 의장에 이규재의장의 연임 명예의장에 이종린, 나창순, 강희남 추대안 이성근감사 유임과 새로 조순덕 신임감사 그리고 이경원 사무처장 인선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의장에는 이규재 의장이 중앙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재선출되다. 민가협 전의장이신 조순덕 선생이 감사로 위촉되었다. 11기 1차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며 총회를 마치다. 이어 열린 2009년 범민련 통일일꾼수련회는 남측본부의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를 해설하는 강의에 이어 소속조직의 결의를 세우며 짧고 굵게, 힘있는 방식으로 전개되다.